

사건번호 : 2024-012874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 피해자 : 김정미(닉네임 : 미정) / 950315 / 회사원 / 경기 용인 거주 / 158cm 58kg
- 가해자 : 김주원(닉네임 : 히히) / 920415 / 회사원 / 인천 송도 거주 / 189cm 84kg(188cm 82kg)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사건 발생 시점 2024.07.02 기준으로는 처음 만났으며, 약 80명의 직장인 모임으로 구성된 오픈채팅방에서만 3주간 연락을 해 왔던 관계입니다. (오픈채팅방 개설일 : 2024.06.10 각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일자는 다름)

사건 개요

(간단요약 : 가해자 집에 감 → 억지로 함 → 그 과정에서 사귀자는식 감정선 건들여서 유사연애)

일시 (시간)	장소	내용
2024-06-10 14:25	온라인	오픈채팅방 개설
2024-06-10 15:12	온라인	가해자(김주원, 히히) 입장
2024-06-10 22:12	온라인	피해자(김정미, 미정) 입장
2024-07-02 19:50	별도깨비 포장마차	가해자와 피해자 만남
2024-07-02 20:02	별도깨비 포장마차	가해자, 피해자, 신동기 만남
2024-07-02 22:35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가해자, 피해자 아이스크림 구입 (술에 취해 힘들다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야기함)
2024-07-02 22:45	1층 로비	신동기 집으로 감, 피해자 가해자 집으로 감
2024-07-02 23:00	가해자 집	사건발생
2024-07-03 07:00	가해자 집-회사	피해자 집에서 나옴(출근)
2024-07-06 23:33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	112 신고

2024년 07월 02일에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 가해자, 신동기(닉네임 : 곤듀, 왜 쫓겨났어?)가 송도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1층에 위치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19시 50분에 피해자, 가해자가 먼저 만나 소주1병을 먹고, 뒤늦게 신동기가 와서 밤 약 밤 22시 45분 까지 3명에서 총 소주6-7병과 맥주2잔(김주원1잔, 신동기1잔)을 먹고 신동기와 헤어지고, "고양이 보러 갈래?" 라는 가해자의 말에 피해자가 응하여 가해자의 집(송도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904호)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들어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해자의 고양이(양갱)을 보고 있었으며, 가해자가 얼른 신발을 벗으라는 말에 신발을 벗고 가해자의 소파 아래(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포함하여 스몰토킹을 하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저항을 하였지만, 눕혀진 상태라 큰 저항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에 가해자는 "나는 많이 호감표시를 한 것 같은데 왜 안되냐, 사귀자, 결혼하고 싶다."며 키스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평소 오픈채팅방에서 가해자는 슬랜더가 이상형임을 언급한 적이 있는 바, 슬랜더가 아닌 피해자는 "난 슬랜더가 아닌데 왜 좋아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예쁘고, 글래머고, 비율 좋고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섹스를 시도하려 했고, 피해자는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거부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섹스 경험이 없음을 이야기 하였으며, 지금까지 연애중에서도 관계로 인해 헤어진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중에도 가해자는 사귀자, 결혼하고싶다는 등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놓지는 않겠다, 비비기만 하겠다"며 재차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삽입 시도에 가해자가 요구한 성기를 만져주는 것과 빨아주는 것을 하였으나,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삽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안된다며 거부와 함께 피임 이야기를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큰 저항은 할 수 없었고, 가해자에게 "힘빼"라는 단어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큰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삽입은 콘돔없이 진행이 되었고, 피해자가 콘돔에 대해 이야기하자 "본인은 관계할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 밖에서 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기가 생기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너는 나랑 무조건 결혼해야되는거 아니냐"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술도 먹은 상태고 내일 출근을 잠을 자야되니 피해자는 가해자가 준 옷을 입고 가해자와 함께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 가해자는 "한번 더 하고싶다"는 말과 함께 섹스를 요구를 했고, 저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지난 밤과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여러 번 시도에 즉시 집을 나오지 못한 이유는 술을 먹어 힘이 든 상태와 공포, 반면에 가해자가 진짜 피해자를 좋아해서 하는건가 싶은 '선색후사' 인건가 싶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는 사귀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가해자는 장인, 장모라는 단어를 쓰며 다음에 만나면 고백하겠다고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만나면 무조건 한번은 섹스를 해야한다."는 말을 해 오며 대화를 하였습니다.(7월4일 녹취록 참고)

(7월6일 통화녹취록 中 사귀는 사이가 아님을 가해자가 진술)

7월 4일 저녁 통화 도중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관계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시도한 것으로 해줄래."로 넘어갔습니다. (7월4일 녹취록 참고)

연락을 주고 받는 도중 7월 6일 토요일 가해자는 피해자를 차단하였고, 피해자는 3자의 폰으로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본가라 이따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3자의 폰도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픈채팅방 운영진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운영진을 통해 가해자가 3일 저녁에도 오픈채팅방에 속한 여성(오자윤, 닉네임 : 조아)과 1대1로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증거자료 有), 평소 가해자는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여 운영진과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제보를 통해 7월 4일에도 다른 여자(오픈채팅방 외)에게도 연락 및 스토킹 등을 한 제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7일 일요일에도 새로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저를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는 '가해자가 좋아해서 실수를 했겠다.' 라고 생각했고, 저도 어느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연인관계에서도 관계 거부 시에는 안하는 것이 맞고, 이를 가해자에게 잘못됨 것임을 알리기 위해 **관계거부에도 불구하고 관계한 것 (가해자 진술 7월 6일 녹취록 참고)**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녹취록 일부 증거 자료 1 (2024.07.04)	녹취록 일부 증거 자료 2 (2024.07.06)
<p>김정미 : 그래도 내가 거부했는데 한 거는 오빠 잘못된 거잖아.</p> <hr/>  <p style="text-align: center;">11</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녹취록 대표 전문업체 경찰속기사무소</p> <hr/> <p>김주원 : 거부했는데 한 거?</p> <p>김정미 : 응.</p> <p>김주원 : 끊임없이 도전한 거라고 얘기해 줄래?</p> <p>김정미 : 아, 그래. 알겠어. 근데 그래도,</p> <p>김주원 : 너는 섹스만 거절했지 다른 것들은 거절하지 않았잖아.</p> <p>김정미 : 뭐?</p> <p>김주원 : 넣는 것만 거절했지.</p> <p>김정미 : 그래. 그래도 결국에는 했잖아. 결국엔 했잖아.</p> <p>김주원 : 근데 너 좀 잘 맞긴 해.</p>	<p>김정미 : 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싫다 했는데 했잖아.</p> <p>김주원 : 어.</p>

1. 오픈채팅방의 건전성 여부

오픈채팅방은 직장인끼리 소통하고 가끔씩 만나는 모임이며, 수시로 병(모임)이 있었으며, 규칙이 있는 건전한 모임이었습니다.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有)

오픈채팅방 규칙!

① 닉네임 연도 지역 성별

*지역은 사는지역 혹은 출근지역 닉네임은 두글자

예시) 길동 98 노원 남, 길순 94 수원 여 (서울X, 경기X)

② 자유롭게 떠드는 만큼 심한 장난X 욕설X, 정치 및 종교 교적인 민감한 부분들 얘기 X

③친목방으로 연애목적이신분들은 다른모임으로

④과도한 플러팅, 추파, 가스라이팅은 절대금지

⑤모임 진행중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 환영

⑥우리모임은 원칙적으로 기혼자는 안받아요

⑦대화방에서 섹드립, 여미새, 남미새, 페미, 풍풍 드립 금지

모임관련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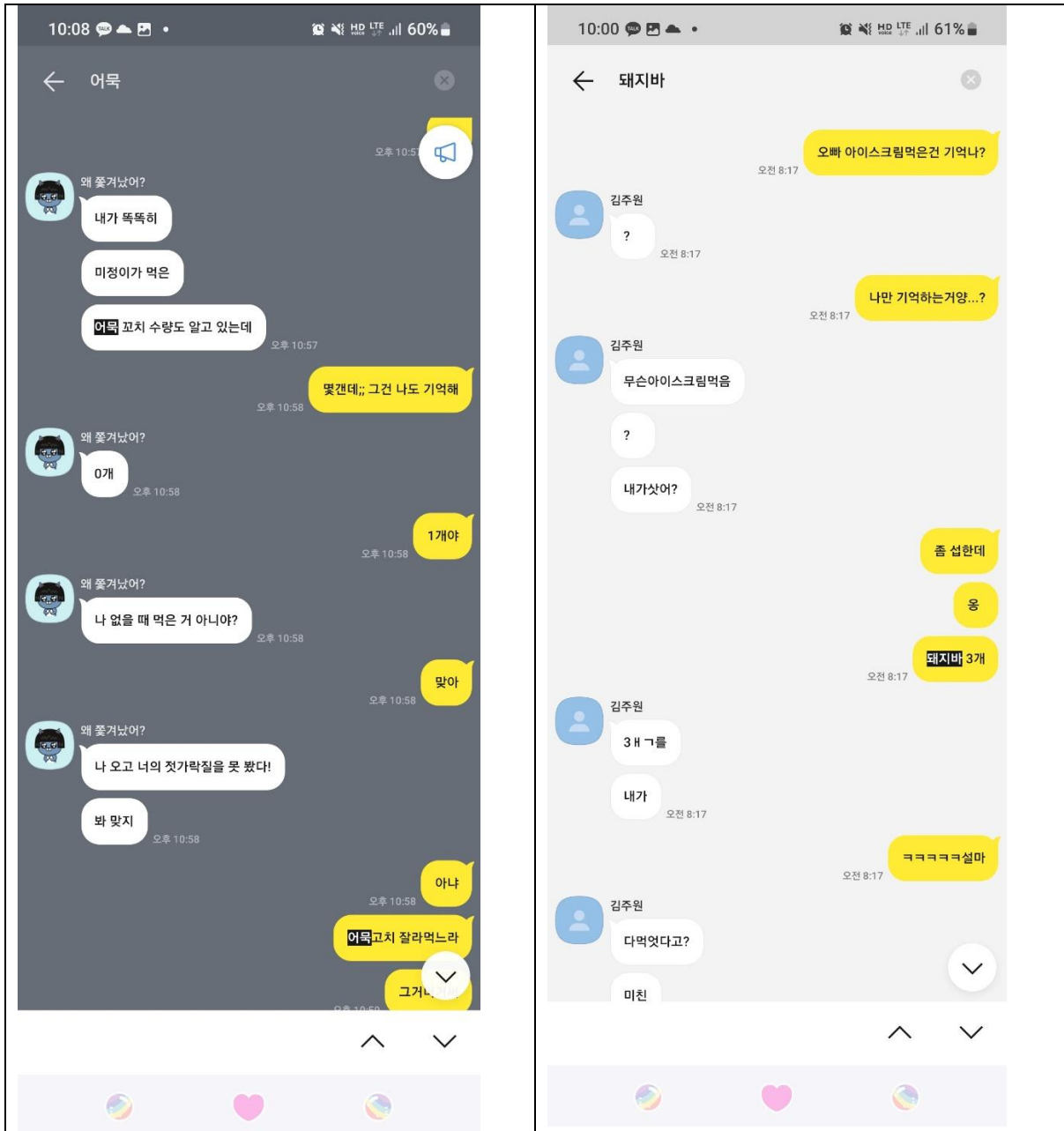
①모임 진행 시 이성간의 1:1 만남은 금지 (사고방지)

②모임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으며, 일정을 등록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등록

③모임을 진행할 경우 정산을 위해 모임주최자는 정산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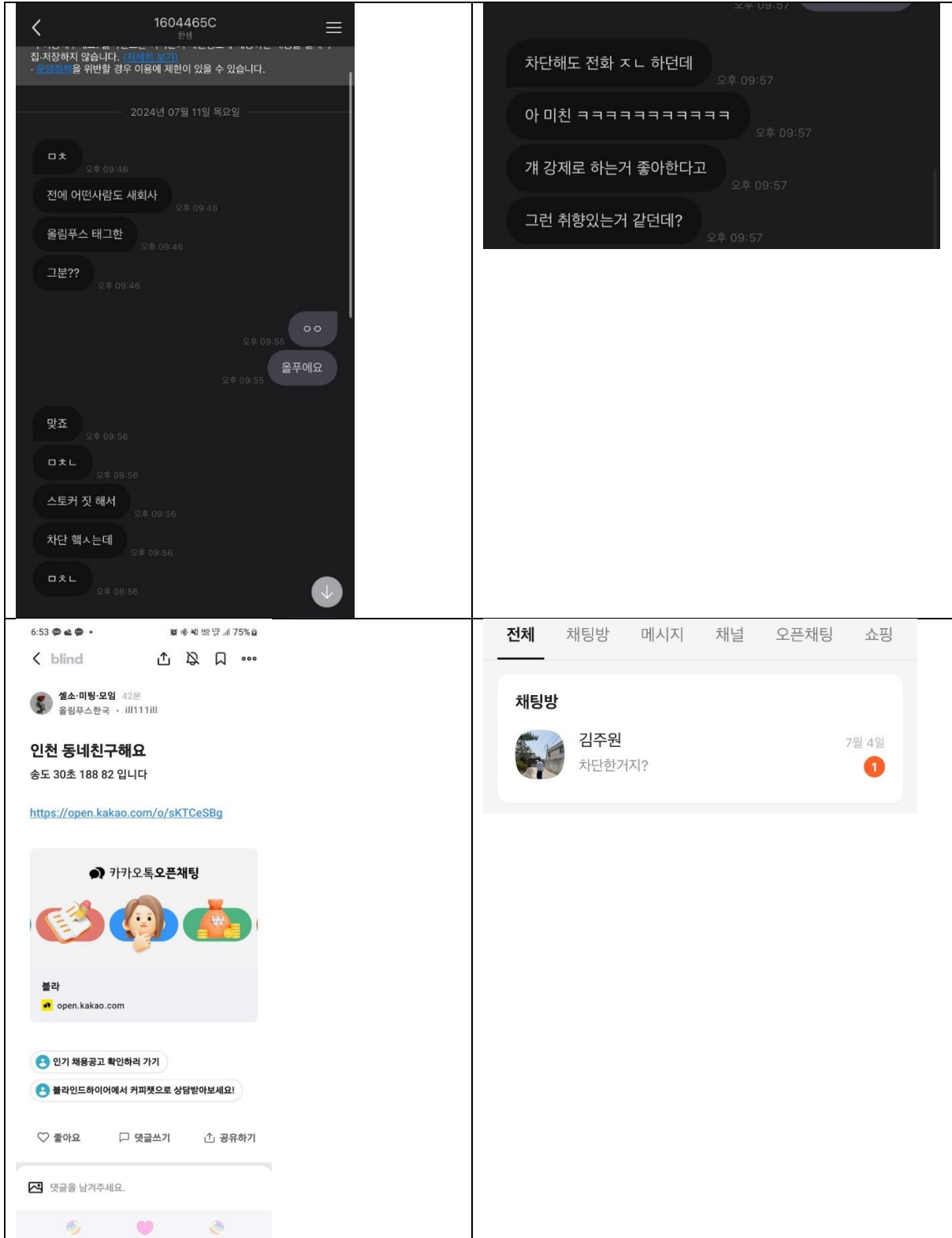
2.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여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만 힘들었을 뿐 모든 기억을 하고 있으며, 이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 (김주원 관련자료 정리 파일 참고)를 통해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가해자 관련 자료

가해자는 블라인드를 통해 주로 이성을 만나며, 익명 제보를 보아 추가로 신고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게시글을 쓴 적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주원 관련 자료 정리"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연려되는 사항**

- 사건 발생일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뺀 것. (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함)
- 사건 발생일 가해자의 대시에 피해자가 “몸은 (슬랜더)로 바꿀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것 (진술x)
- 사건 발생일 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관계 후 가해자와 잠을 잤고, 씻고 출근한 것 (진술x)
- 사건 발생일 이후 가해자와 연락하는 도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앞으로는 콘돔착용을 권유한 것 (진술x)

5. **참고사항**

가해자 관련 자료에 따라 피해자 모집 중 직접 가해자에게 연락이 온 내용 첨부드립니다. 가해자는 이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과 카카오톡 대화

저장한 날짜 : 2024-07-18 19:33:03

-----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

타인, 기관 등의 사칭에 유의해 주세요. 금전 또는개인정보를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정책을 위반한 메시지로 신고 접수 시 카카오톡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후 8:25] 안녕하세요

[피해자 모여] [오후 8:28] 안녕하세요

[.] [오후 8:30] 여럿 모였나요?

[피해자 모여] [오후 8:30] 누구신가요?

[.] [오후 8:30] 저도 만난적이있어서 들어왔어요

[피해자 모여] [오후 8:30] 증명부탁드립니다

[.] [오후 8:30] 어떻게증명해야하나...?

[피해자 모여] [오후 8:31] 본인 블라 마이페이지 캡쳐해주시고

특일부 보내주세요

[.] [오후 8:32] 그럼 제가 특정 될 것 같아서요.. 연락은 지운지 쯤 됐구요

[피해자 모여] [오후 8:33] 그분성함말씀해주세요

[.] [오후 8:34] ㄱㅈㅇ 아닌가요?

[피해자 모여] [오후 8:35] 너가 김주원이자나

[.] [오후 8:36] 저 아니예요

[.] [오후 8:43] 성추행 성범죄 일으킨 적 없습니다.

저 해당하는 글에 해당되시는 분이 7.2일 만난 적이 있으신 분이데,

그뒤로도 계속 대화하고 통화하고, 기록남아있어요..

강압적인 관계도 아니였고 그날 한번의 관계도 아니였고 같이 잘 자고 일어나서 그뒤로도 연락 잘 했습니다

그 다음주 화요일인 7월9일에 본인네 동네인 용인으로 오면 본인이 모텔잡아주겠다고 했었어요..

만나기로 하고 토요일에 제가 연락두절이었어서, 그 모습에 본인이 먹버당한것 아니냐며 그날 저녁에 우시며 전화했었고요..

그런거 아니라고 해명도했지만 그 모습에 화나고, 제가 계속 글 올리는 모습에 화나서 신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제가 많이 만난건 사실이고 만난분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강압적인 성관계나 불법적이고 고압적인 성관계는 한적없습니다..

[.] [오후 8:45] 여럿 만나면서 저한테 기분나쁘시고 화나실만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두번다시 자중하며 살 생각입니다.

근데, 성범죄는 정말 아니예요 강압적인 관계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2차로 집에서 같이 술마시며, 스킨쉽이 있던적도있지만 싫다고 하면 더 안했어요..

한번도 그런적없습니다

[.] [오후 8:47] 그리고 해당되시는 본인이사라면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고싶네요.

절대로 그럴마음도 그런행동도 하지않았습니다..

[.] [오후 8:47] 당근에 글 올리신 분한테도 해명하였는데 이미 , 탈퇴하고 사라지셨더라고요

[.] [오후 8:48] 그분은 제가 누군지 알것같은데 뭐 이미

절 차단하셔서 제가 더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구요

[.] [오후 8:48]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또 새로운 이성을 계속 만나려고 한 모습에 실망하시고 기분나쁘시고 충분히 알고있고 죄송합니다.

[.] [오후 8:49] 통화되시는지요

[.] [오후 8:50] 보이스톡 해요

[.] [오후 8:51] 보이스톡 부재중

[.] [오후 8:58]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또 보는 날을 정하고 화요일에 숙박 본인이 예약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진 않자나
요...

복잡한여자관계로 또 연락두절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것은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하지만..

성범죄는 아니예요.. 이미 신고하신걸로 들었는데

저도 인생이 망가지겠네요.. 죽어야 해결이 될 일인지요...

[.] [오후 9:06] 혹시 당사자이실까요

[.] [오후 9:29] 보이스톡 해요

[.] [오후 9:29] 보이스톡 부재중

[.] [오후 9:29] 통화어려우실까요

-----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

[.] [오전 11:47] 계속 더 살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잘못된 사실이 계속 올라오네요... 회사 사람들도 이젠 모르시는 분이 없고 저도 퇴사합니다.

그냥 제가 죽어야 끝나는 것 같네요..

당사자이신진 모르겠지만

죽더라도 피해가진 않게 하겠습니다.

카톡하고 전화하며 갑자기 연락두절되고... 여럿 여자를 만나 상처받게해서 미안합니다..

[피해자 모여] [오전 11:53] 블라인드 글은 모르는 일입니다.

[.] [오전 11:56] 지금 배경에 쓰신

글은 한샘다니시는 분이 쓰신글이잖아요..

[.] [오전 11:57] 저 글의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 [오후 12:16]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모여] [오후 12:28] 사진

[피해자 모여] [오후 12:28] 저도 공격 당하네요

[.] [오후 12:29] 네 봤습니다..

[.] [오후 12:29] 한샘 그 분이 일을 더 키우시고싶나보네요.. 죄송합니다..

[.] [오후 1:34] 저희 회사에서도 이미 윗사람들, 동료들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사해야하구요..

저도 인생을 잘못살았다고 생각하구요.. 정말 매일 죽고싶어서 단하루도 잔적이없습니다.

하지만 저 글때문에 저뿐아니라.. 회사분들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입는다고 힘들어하셔요...

죄송스럽지만.. 한샘님이나 글 당사자님들과 연락이 되신다면
이런일로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모여] [오후 1:36] 저도 저분들 누군지 모릅니다.

[.] [오후 1:37] 한샘분이시량은 아시지않나요,

[.] [오후 1:39]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다면 이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비 많이오는데 운전 조심하십시오

[.] [오후 5:15] 많이 불편하지않으시다면 잠시 통화 될까요..?

[.] [오후 5:30]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6. 신고 망설인 자료 (피해자-피해자 친구(조수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정미] [오후 3:09] 수린아

[정미] [오후 3:09] 나 고민상담점 해조

[일랑 조수린] [오후 3:28] 왜 뭘다!

[정미] [오후 3:32] 연애 애긴데

[정미] [오후 3:32] 좀 너가 듣고 그럴수도 있어

[정미] [오후 3:32] ㅋㅋ

[일랑 조수린] [오후 3:52] 왜?

[일랑 조수린] [오후 3:52] 연애 왜 뭔데

[일랑 조수린] [오후 3:52]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만나나??

[정미] [오후 3:52] 아니야

[정미] [오후 3:52] ㅋㅋㅋㅋ

[정미] [오후 3:52] 어제 첨 만났는데

[정미] [오후 3:53] 일이좀있었어

[일랑 조수린] [오후 3:53] 응

[일랑 조수린] [오후 3:53] 무슨일?

[일랑 조수린] [오후 3:53] 말해봐

[정미] [오후 3:53] 술먹고

[정미] [오후 3:53] 둘다 취해가지고

[정미] [오후 3:54] 그 오빠네가 오피스텔이라 1층이 상가란말야

[일랑 조수린] [오후 3:54] 응

[정미] [오후 3:54] 거기서 술먹고 오빠네 가버렸어

[일랑 조수린] [오후 3:54] 오빠안 잤오?

[정미] [오후 3:54] 어?

[정미] [오후 3:54] 잤지

[일랑 조수린] [오후 3:54] 어?

[일랑 조수린] [오후 3:54] 너 미국인이네

[일랑 조수린] [오후 3:54] 아메리칸데스네

[정미] [오후 3:54] 근데 다시 말해봐야되냐

[일랑 조수린] [오후 3:54]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미] [오후 3:54] ㅋㅋㅋㅋㅋ하

[일랑 조수린] [오후 3:55] 나만 코리안이야 ^^

[정미] [오후 3:55] 나 이럴줄몰랐다

[일랑 조수린] [오후 3:55] 참내

[정미] [오후 3:55] 수린아

[정미] [오후 3:55] 너도 바로 키스 했대매

[정미] [오후 3:55] 근데 연락은 오늘 계속 하는데

[정미] [오후 3:55] 사귀는거 맞냐거 다시 물어봐야될까?

[정미] [오후 3:55] 어제 밤에는 얘기했었는데

[정미] [오후 3:55] 너무 어렵다..

[일랑 조수린] [오후 3:59] 어베눔

뭐라던데

[일랑 조수린] [오후 3:59] 시뒤재???

[정미] [오후 3:59] 영

[정미] [오후 3:59] 연락을 한 3주하고 만난거라

[정미] [오후 4:00] 만난건어제가 처음이고

[일랑 조수린] [오후 4:11] 흠

[일랑 조수린] [오후 4:11] 근데 잤다고 사귀기조

[일랑 조수린] [오후 4:11] 줌..

[일랑 조수린] [오후 4:11] 넌 좋아해?

[정미] [오후 4:12] 응

[정미] [오후 4:12] 근데 또 보기로 하긴 했어

[일랑 조수린] [오후 4:43] 흠

[일랑 조수린] [오후 4:43] 그럼 그거는 만나서 이야기해보는게 어때

[일랑 조수린] [오후 4:43] 콘돔 잘 껴제?

[일랑 조수린] [오후 4:50] 3주동안 이야기했으면 어느정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것 같긴한데

[일랑 조수린] [오후 4:51] 그래도 한 번 만나거 사귀는거는 좀 성급하지 아모겠나

[일랑 조수린] [오후 4:51] 않겠나

[일랑 조수린] [오후 4:51] 나는 몇 번 더 만나보고 사귀면 좋을거 같은데

[정미] [오후 4:58] 알았어

[정미] [오후 4:58] 거마워수린양

[일랑 조수린] [오후 5:00] 마이 좋구만

[일랑 조수린] [오후 5:00] 그 오빠야가

[일랑 조수린] [오후 5:00] 너랑 근처에 살면 한 3번은 더 만나보고 진짜 니가 맘에들면 사귀자해

[정미] [오후 5:00] 알았오

[일랑 조수린] [오후 5:07] ㅋㅋㅋㅋㅋㅋ아니 무슨일이야 근데

[일랑 조수린] [오후 5:07] --

[일랑 조수린] [오후 5:07] 말없이 남자를 다 만나고

[정미] [오후 5:47] 남자는 말없이 만나긴하지

[정미] [오후 5:47] 이번에는 진짜 예상 못했다..

[정미] [오후 5:47] 만날거라곤..

[일랑 조수린] [오후 6:56] 나도 충격이다 정미야

[정미] [오후 6:56] 그럴만하지ㅏㅏ

[일랑 조수린] [오후 7:11]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랑 조수린] [오후 7:11] 아니ㅏ근데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일랑 조수린] [오후 7:11] 내 친구가 그럴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일랑 조수린] [오후 7:12] 나 요즘 자주 놀라

[일랑 조수린] [오후 7:12] 내 다른 친구들과 사귀지 이틀만에

[일랑 조수린] [오후 7:12] 남자친구 집에서 자고 오질 않나

[일랑 조수린] [오후 7:12] 오픈마인드여 다들

[정미] [오후 11:16] ㅋㅋ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ㅠ

[정미] [오후 11:17] 지금 넘 당황스러워서 🙄 어쩔줄모르게따

[일랑 조수린] [오후 11:18] ㅋㅋㅋㅋ

[일랑 조수린] [오후 11:18] 연락은 계속 하고 있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18] 그 오빠 반응은 어때

[일랑 조수린] [오후 11:18] 또 언제 만나?

[정미] [오후 11:19] 담주?

[정미] [오후 11:19] 근데

[정미] [오후 11:19] 하 모르게따.. ㅏ

[정미] [오후 11:19] 연락 됐다안됐다해

[일랑 조수린] [오후 11:19] 바쁜가??

[정미] [오후 11:20] 노노

[정미] [오후 11:20] 그건아니야

[일랑 조수린] [오후 11:20] 어케

알아??!

[일랑 조수린] [오후 11:20] 연락을 원래 잘 안하는 스타일인라

[일랑 조수린] [오후 11:20] 가

[정미] [오후 11:20] 생활패턴을 알아서

[일랑 조수린] [오후 11:20] 근데 그 사람도 당황스러울수도

[정미] [오후 11:21] 그런가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뭔가생각 못했던 일이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갑자기 똥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자기도 당황스럽고

[정미] [오후 11:21] 난 거부했었어 첨에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이게 맞는가 싶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그렇지ㅏ않을까??

[정미] [오후 11:21] 내가 바로 했겠냐 ㅠ

[정미] [오후 11:21] 하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응

[정미] [오후 11:21] 그냥 술먹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그넨 둘 다 취한 상태였음

[정미] [오후 11:21] 그런것달아서

[정미] [오후 11:21] 좀 더 그렇다 π

[일랑 조수린] [오후 11:21] 아침에 일어나거 당황했을수도 있어 자기도

[정미] [오후 11:22] 그런모습

[정미] [오후 11:22] 전혀 없던데

[일랑 조수린] [오후 11:22] 마음 1도 없이 잘 수가 있나

[정미] [오후 11:22] ππ한번더하자고했어일어나기전에

[일랑 조수린] [오후 11:22] 그 사람도 맘이 있으니까 그렇거 아닐까

[정미] [오후 11:22] 내가 먼저 나갔거든

[일랑 조수린] [오후 11:22] 아 미틴;

[일랑 조수린] [오후 11:22] 그럼 당황은 아니네

[정미] [오후 11:22] 영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몇살인데 그분

[정미] [오후 11:23] 92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흠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완전 나이차이 많이 나는것도 아니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결혼 생각할 나이 아닌가

[정미] [오후 11:23] 결혼얘기도 나옴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답장이 잘 안와?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지금?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하고 나서 대화는 어떤데

[정미] [오후 11:23] 영 글고 대화 안이어가

[일랑 조수린] [오후 11:23] 흠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흐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ㅁ

[정미] [오후 11:24] 그냥 원나잇상대였나

[정미] [오후 11:24] 싶기도 하..ㅏ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너도 좋았으면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했을때

[정미] [오후 11:24] 하면서도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그럼 그냥

[정미] [오후 11:24] 거부했오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흘려보내는게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아 진짜?

[일랑 조수린] [오후 11:24] 억지로 한거여?

[정미] [오후 11:25] 그래서 조절한다고 해놓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흠 정미

[정미] [오후 11:25] 막판엔 끝까지감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뭔가 지금까지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이야기를 들었을때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존나 썩레기 같은데

[정미] [오후 11:25] 그치;;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연락 꼭 해야되나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사귀고 싶어?

[정미] [오후 11:25] 일단 먼저는 안하게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하지마

[일랑 조수린] [오후 11:25] 연락 끊기면

[일랑 조수린] [오후 11:26] 그냥 그대로 빠이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정미] [오후 11:26] 응응

[일랑 조수린] [오후 11:26] 너가 거부 의사 보였는데도

[정미] [오후 11:26] 철렁아니냐

[일랑 조수린] [오후 11:26] 끝까지 갔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이어나갈라하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26] 쯤나 내가 봤을때 신고해도 무방한데

[일랑 조수린] [오후 11:26] 너 기분 나쁠까봐 말 안함

[정미] [오후 11:26] 아냐

[일랑 조수린] [오후 11:26] 쓰레기새끼 같음

[정미] [오후 11:26]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정미] [오후 11:27] 고맙지

[정미] [오후 11:27] 그거때메 수린이 너한테 말 꺼낸거구

[일랑 조수린] [오후 11:27] 휴...

[정미] [오후 11:27] 역시 우리 서른 맞구나

[일랑 조수린] [오후 11:27] 잔소리 폭풍 하고 싶다

[일랑 조수린] [오후 11:27] ㅠ

[정미] [오후 11:27] 어릴때도 이런적없었는데

[정미] [오후 11:27] ㅠㅠ

[일랑 조수린] [오후 11:27] 근데 안할게

[일랑 조수린] [오후 11:27] ㅠㅠ

[정미] [오후 11:27] 만나면

[정미] [오후 11:27] 제대로 해줘

[일랑 조수린] [오후 11:27] 등짝 때려도 되나 ㅠ

[정미] [오후 11:27] 우리 만날때는 정리 될것같은데

[정미] [오후 11:28] 웅증때려조라 ㅏ

[일랑 조수린] [오후 11:28] ㅠㅠ

[일랑 조수린] [오후 11:28] 아니 근데 새끼 죽일까

[일랑 조수린] [오후 11:28] 남자새끼 진짜
[일랑 조수린] [오후 11:28] 도랏나
[일랑 조수린] [오후 11:28] 개짜증나네
[정미] [오후 11:28] 하
[정미] [오후 11:28] 다른거 볼것없구
[정미] [오후 11:28] 일단 외적인거
[정미] [오후 11:28] 키가 189여
[정미] [오후 11:28] 거기에 내가 흘라당했나보다
[일랑 조수린] [오후 11:28] 하...
[정미] [오후 11:28] 하
[일랑 조수린] [오후 11:29] 맞아야됨
[일랑 조수린] [오후 11:29] 너도
[일랑 조수린] [오후 11:29] 등짝응 아주 그냥
[일랑 조수린] [오후 11:29] 첫만남에 거기서 술을 왜 마셔
[일랑 조수린] [오후 11:29] 가쓰나야
[일랑 조수린] [오후 11:29] 골이 다 땡기네
[정미] [오후 11:29] 안만나면
[일랑 조수린] [오후 11:29] 근데 이미 벌어진일 되돌릴 수 없고
[정미] [오후 11:30] 특으로 얘기는 꺼내야될것같은데
[일랑 조수린] [오후 11:30] 외적인거에 너도 끌렸고
[정미] [오후 11:30] 강제로한거아니냐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30] 이야기 꺼내면
[일랑 조수린] [오후 11:30] 반응 삭막할거 같은데
[정미] [오후 11:30] 영 그럴것같긴해
[일랑 조수린] [오후 11:30] 응? 너도 좋았잖아
[일랑 조수린] [오후 11:30] 이지랄할거 같음

[정미] [오후 11:31] ππππ

[일랑 조수린] [오후 11:31] 근데 사귀라고 해줄만큼

[일랑 조수린] [오후 11:31] 좋은 사람 아닌거 같고

[일랑 조수린] [오후 11:31] 니가 이야기할라고 하면 할수록

[일랑 조수린] [오후 11:31] 지조분하게 끝날거 같은데

[정미] [오후 11:31] 영영

[일랑 조수린] [오후 11:31] 그냥 연락하지말고

[정미] [오후 11:32] 뭘애긴지 알았어

[일랑 조수린] [오후 11:32] 자연스럽게 끝내는게 어때

[정미] [오후 11:32] 신고는 해야할까

[정미] [오후 11:32] 씨부럴

[일랑 조수린] [오후 11:32] 신고 근데

[일랑 조수린] [오후 11:32] 어떻게 증거를

[일랑 조수린] [오후 11:32] 잡을건데

[정미] [오후 11:32] 팬티??

[일랑 조수린] [오후 11:32] 팬티?

[일랑 조수린] [오후 11:32] 찢었어?

[정미] [오후 11:32] 노노

[정미] [오후 11:32] 혹시나해서 안빨았어

[일랑 조수린] [오후 11:33] 근데 들어갈때는

[일랑 조수린] [오후 11:33] 같니 들어가요을거 아니야

[일랑 조수린] [오후 11:33] 강제로 했다는걸 어떻게 증거를 잡지

[정미] [오후 11:33] 그것도 증거 내야하나 π

[일랑 조수린] [오후 11:35] <https://www.lawtalk.co.kr/qna/277355>

[일랑 조수린] [오후 11:35] 읽어봐

[정미] [오후 11:35] 안될것같네

[정미] [오후 11:36] 바로 나온게 아니니까

[일랑 조수린] [오후 11:36] ㅋㅋ

[일랑 조수린] [오후 11:37] 상담은 한 번

[일랑 조수린] [오후 11:37] 받아볼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일랑 조수린] [오후 11:37] 거절했는데 이렇게 계속 했다

[정미] [오후 11:37] 음

[정미] [오후 11:37] 근데

[정미] [오후 11:37] 안될것같애

[정미] [오후 11:37] 내가 아빠일로

[정미] [오후 11:37] 법적인거 좀 하고있단말야

[일랑 조수린] [오후 11:37] 응

[정미] [오후 11:38] 너가 보내준 링크대로

[정미] [오후 11:38] 증거채택이 어려울것같아

[일랑 조수린] [오후 11:38] 흠..

[일랑 조수린] [오후 11:38] 그럼 이제 그 남자랑 연락하지마

[일랑 조수린] [오후 11:38] 그냥 잊어

[일랑 조수린] [오후 11:39] 휴...

[일랑 조수린] [오후 11:39] 소개팅 자리를 알아보자

[일랑 조수린] [오후 11:39] 피지컬 좋은 사람으로

[정미] [오후 11:39] ㅋㅋ하 ㅏ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정미] [오전 7:08] 수린아 너가 걱정많이하고 내 등짝스메싱을 때리고싶겠지만,,혹시나 맘 속에 걱정할 너를 생각해서 상황 얘기해!

담주에 만나서 얘기하는건 넘 늦을것같아서 안그래도 어제 전화왔더라구,,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술먹고한실수절대 아니었고 어쨌든 내가 거부했는데 한거는 미안하대,, 앞으로 나랑 잘해보고싶은 맘이 커서 그랬대,,뭐 이것저것 얘기 들었고! 당분간은 만나보기로 했어

[정미] [오전 7:09] 아무튼 친구로서 고맙다 수린아! 내걱정을 우선시 해주공

[정미] [오전 7:09] 여행 잘다녀왕~~

[일랑 조수린] [오전 7:46] 이 그렇게 말했어?? 그렇다면 그 새끼라고 한거 스미미생.. 앞으론 그 분이라고 해야겠다 ㅋㅋㅋ 실수가 아니고 너랑 잘 해보려고 한다서 해서 진짜 다행! 잘 만나봐 정미야

[정미] [오전 8:07] 아냐 그건 근데 그새끼 맞아 ㅋㅋㅋㅋㅋ

7. (강간) 증거자료

- 2024.07.04 녹취록 (속기완료)
- 2024.07.06 녹취록 (속기완료)
- 김정미-조수린(김정미 친구) 카카오톡 대화 (고민상담)

8. 기타 증거자료

- 김주원 카카오톡 대화
-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대화
- 오픈채팅방(정산방) 카카오톡 대화
- 오픈채팅방 운영진 - 김주원 카카오톡 대화
- 김주원 관련 자료 정리

녹취록



경청속기사무소

www.kac67.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릉빌딩 3층 301호

TEL : 02) 2055-0402 / FAX : 050) 8098-0402 / E-Mail : kac67@naver.com

녹취록

녹음 일시	2024년 07월 04일 23시 29분
녹음 장소	전화통화
녹음 파일	통화 녹음 김주원_240704_232945
대화자	김정미 / 김주원
작성 일자	2024년 07월 10일

본 녹취록은 의뢰받은 녹음내용과 상위(相違) 없이 기록되었음을 증명함.

담당속기사 신민재



속기사무소

- 본문의 녹음일시, 장소, 대화자 등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의 주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은 녹음상태의 미비 등으로 인한 청취불능을 뜻함.
- 녹음청취의 미비로 인한 명사 등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 있음.

○ 녹 음 일 시 : 2024년 07월 04일 23시 29분

○ 녹 음 장 소 : 전화통화

○ 대 화 자 : 김정미 / 김주원

대 화 내 용

파일명 : 통화 녹음 김주원_240704_232945

김주원 : 방해금지모드였어.

김정미 : 응?

김주원 : 방해금지모드였어.

김정미 : 아- 갑자기 기분 안 좋아졌지?

김주원 : 응.

김정미 : 근데 방은 왜 종료했어?

김주원 : 굳이 별로 따로 안 만날 거 같아서.

김정미 : 아, 진짜?



김주원 : 어.

김정미 : 난 만날 줄 알았는데.

김주원 : 어?

김정미 : 만날 줄 알았는데.

김주원 : 아니, 뭐 같이, 어차피 연락처 다 알잖아.

김정미 : 응. 난 모르지.

김주원 : 너 나밖에 모르나?

김정미 : 어, 난 오빠밖에 몰라. 나 이 방에서 다, 번호 판 사람 아무도 없어.

김주원 : 응?

김정미 : 번호 판 사람 아무도 없지.

김주원 : 여보세요? 잘 안 들리네.

김정미 : 여기가 잘 안 되나?

김주원 : 어, 어.

김정미 : 이제 되나?

김주원 : 아니, 뭐야, 응. 나도 그 형 번호 알고 너 것도 번호 알고. 조아는 뭐 근데



따로 안 볼 거 같고. 개는 좀 불편해할 거 같고. 그래서 굳이, 따로 연락해서 보면 되니까.

김정미 : 응. 어, 왜 안 지웠지?

김주원 : 뭐 저 글?

김정미 : 응.

김주원 : 20시간 전이니까 거의 새벽에 올린, 밤 몇 시나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야, 어제.

김정미 : 응. 그래도 본인이 올린 걸 기억할 거 아니야. 그럼 내려야지 자기도.

김주원 : 지 일 아니니까. 지 일 아니니까 두는 거지 그냥. 그냥 계속 갈 줄 알고 둔 거지.

김정미 : 뭔가 되게 최근에 너무 우다다다 왔어. 갑자기.

김주원 : 뭘 우다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김정미 : 여기가 잘 안 터지네.

김주원 : 안 터져? 얼른 자.

김정미 : 그래서 용인 언제 올 거야?

김주원 : 언제 갈까?

김정미 : 언제 되는데?

김주원 : 언제 갈까?

김정미 : 언제 되는데?

김주원 : 어..., 내일은 동탄에 가고. 일요일은, 일요일에 될 수도 있겠다.

김정미 : 일요일은 내가 안 될 거 같은데?

김주원 : 아, 너가 안 돼?

김정미 : 왜? 나도 안 되는 날 있다고.

김주원 : 뭐 하는데?

김정미 : 아, 나 가족 일정이 있어서.

김주원 : 아, 뭐 인사드리러 가면 되나?

김정미 : 응?

김주원 : 인사드리러 가면 돼?

김정미 : 다른 때. 다른 날.

김주원 : 응? 다른 날?

김정미 : 다른 날. 응. 근데 평일에 오면 힘들잖아.



김주원 : 어?

김정미 : 평일에 오면 힘들잖아.

김주원 : 뭐 가면 가지.

김정미 : 그래? 그다음 날 그럼 어떻게 하계? 아, 바로 갈 거야?

김주원 : 다음 날? 출근해야지.

김정미 : 응.

김주원 : 같이 있어줄 거지?

김정미 : 어디를?

김주원 : 나랑.

김정미 : 알았어.

김주원 : 응. 갈게.

김정미 : 응.

김주원 : 여기는 출근 금방 가지. 거의 저기는 수원이지 뭐.

김정미 : 응.

김주원 : 그 정도면 수원이지. 한 1시간 반 잡고 나가면 되겠지.



김정미 : 화, 수, 목?

김주원 : 어?

김정미 : 화요일?

김주원 : 화, 수, 목 중에 하루 같게.

김정미 : 응. 나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안 돼.

김주원 : 알겠어.

김정미 : 응.

김주원 : 화, 수, 목 중에 보고 그날 갑자기 ‘나 간다.’ 하면 가는 거야.

김정미 : 알았어. 내가 P 존중해 줄게.

김주원 : 알겠어. 언제 자게?

김정미 : 나? 나 나중에 끝나고 자야지. 나 아직 여기, 내 방이 아니야.

김주원 : 그러면? 어디인데?

김정미 : 여기 약간 독방, 우리 독방이 있어.

김주원 : 아- 너 방에 누구 있어?

김정미 : 아니, 내 방에 누구 없는데 그냥 그래도 흑시나 해서.



김주원 : 응.

김정미 : 나 엄마가 통화하는 거 보면 좀 의심한단 말이야.

김주원 : 하면 어때. 남친 생겼다 하면 되지. 응?

김정미 : 응?

김주원 : (...)면 어때.

김정미 : 알았어.

김주원 : 어.

김정미 : 응.

김주원 : 하여튼 기분이 별로 좋진 않네.

김정미 : 응. 나 같아도 그럴 거 같은데.

김주원 : 응.

김정미 : 근데 나 저거 진짜 그냥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라면 그랬을 거 같아. 근데,

김주원 : 뭐라고 얘기해.

김정미 : 근데 테스랑 연락처를 원래 모르는 사이잖아.



김주원 : 응.

김정미 : 그러니까.

김주원 : 누굴 통해서 얘기해?

김정미 : 초코?

김주원 : 초코도 나 차단해놨고 삭제해서 번호 없어.

김정미 : 아, 진짜?

김주원 : 응.

김정미 : 그렇다고 내가 나서기에는 난 당사자가 아니니까.

김주원 : 사실 조아도 차단했어. 이제.

김정미 : 아, 진짜? 왜?

김주원 : 그냥 따로 뭐 보기도 좀 불편할 거 같고 조아도 나 때문에 그 일로 좀 스트레스 받았을 거 같고. 계속 그런 거 드는 거 같고 미안하다, 잘 지내라고 내가 따로 연락하고 이런 거는 힘들 거 같다고. 개도 뭐 나한테 그럴 거고.

김정미 : 도대체 그날 뭐가,

김주원 : (...) 따로 보는 것도 그렇고.

김정미 : 응. 도대체 그날 뭘 일이 있었던 거야.

김주원 : 그날?

김정미 : 응.

김주원 : 별일 없었어. 근데 나 조아한테 좀 호감이 있었거든.

김정미 : 응.

김주원 : 그때 만났을 때. 두 번 봤었으니까.

김정미 : 응.

김주원 : 근데 뭐 그런 스킨십들이 있었어. 사실 있었어.

김정미 : 응.

김주원 : 사실 있었어. 근데 조아도 그렇게 별로 싫어하진 않았고. 근데 그 뒤로 테스형이 데려다주러 갔고. 연락은 좀 했었는데 조금 둘이 이렇게 만나기에는 아닌 거 같더라고. 성향이.

김정미 : 왜?

김주원 : 조아의 전남친이 나랑 성격이 똑같대.

김정미 : 아-



김주원 :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을 별로 자기는 안 만나고 싶다 이제는. 다른 완전 반대되는 성향을 만나고 싶다 그랬었고. 나도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도 굳이 그닥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 정도까지의 애정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친구 하기로 했었고. 친구 하기로 해서 친구로 이제 친구로 연락한 거지.

김정미 : 어. 나한테는?

김주원 : 너는 좋으니까 너는 나랑 했어. 내가 장난치는 거 같아? 넌 나랑 했어. 내가 장난질하는 거 같아? 내가 뭐 조아랑 뭘 했을 거 같아?

김정미 : 그래도.

김주원 : 보이는 게 다야.

김정미 : 원래 만나면 얘기할라 했는데.

김주원 : 아, 무슨 상황이냐고? 그래, 너가 나한테 물어볼 거 같았어. 근데 뭐 나는 당당해.

김정미 : 근데 만약에 나랑 조아언니랑 바뀌었으면 조아언니랑 그랬을 거 아니야.

김주원 : 뭐가 바뀌어?

김정미 : 만약에 그날의 상황이 조아언니였다면.

김주원 : 조아가 집으로 왔었다면?



김정미 : 어.

김주원 : 만약에 내가 조아랑 했다면?

김정미 : 어.

김주원 : 당연한 거 아니야? 섹스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다면 그다음에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내가 이전에 누구를 만났었던 했던 사람을 책임지는 게 맞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하고 그전에 썸녀가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다시 미안한데 썸녀한테 돌아가는 게 맞냐? 이미 다른 여자랑 섹스를 했는데? 절대 안 되지. 그럼 서로 그냥 아예 둘 다 인연 끊어버리든가.

김정미 : 그래서 나 끊을 거야?

김주원 : 난 개랑 안 했어. 난 개랑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의 스킨십은 아니야.

김정미 : 아, 그래?

김주원 : 어.

김정미 : 알았어.

김주원 : 그 정도까지의 스킨십은 아니야.

김정미 : 그래도 내가 거부했는데 한 거는 오빠 잘못된 거잖아.



김주원 : 거부했는데 한 거?

김정미 : 응.

김주원 : 끊임없이 도전한 거라고 얘기해 줄래?

김정미 : 아, 그래. 알겠어. 근데 그래도,

김주원 : 너는 섹스만 거절했지 다른 것들은 거절하지 않았잖아.

김정미 : 뭐?

김주원 : 넣는 것만 거절했지.

김정미 : 그래. 그래도 결국에는 했잖아. 결국엔 했잖아.

김주원 : 근데 너 좀 잘 맞긴 해.

김정미 : 그리고 피임도 안 한 것도.

김주원 : 어? 뭐라고?

김정미 : 피임 안 한 것도 싫어.

김주원 : 근데 나 원래 콘돔을 안 하는데?

김정미 : 어, 진짜?

김주원 : 응.

김정미 : 그럼 여자가 힘들어.

김주원 : 왜 힘들어?

김정미 : 혹시나 어떻게?

김주원 : 생기면 감사한 거지. 왜 그래?

김정미 : 그래도 나는 그거는 그래도 나는 결혼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김주원 :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 그건 감사지. 요즘은 겹경사야. 애 생기면 겹경사야. 바로 (...).

김정미 : 아니지. 그래도 그거는 결혼하고 하는 게 맞지.

김주원 : 행복 시작이지. 근데 그건 맞긴 해. 너 말이 맞아.

김정미 : 어.

김주원 : 너 말이 맞아. 그냥 한 소리야.

김정미 : 어, 빨리 사과해.

김주원 : 미안. 그건 장난이야. 미안. 그건 내가 사과할게. 사과하는 게 맞아. 잠깐만.

김정미 : 어디 갔다 왔어?

김주원 : 잠깐.

어. 어딜 갔다 와?

김정미 : 응? 아까 비번소리 나길래.

김주원 : 비번?

김정미 : 응.

김주원 : 아니, 아니야. 비번이 아니라 에어컨 끈 거야.

김정미 : 아-

김주원 : 에어컨 끄고 자려고. 켜고 자서 기침하는 거 같아서.

김정미 : 맞아.

김주원 : 너 좀 괜찮아?

김정미 : 나 아직 목 아픈 거 같아.

김주원 : 아, 그래? 약 먹어야겠다. 너도 병원 가야겠다.

김정미 : 응.

김주원 : 미정아, 미정아, 미정아.

김정미 : 나 정미야.

김주원 : 어. 아니,

김정미 : (웃음)

김주원 : 너 닉네임이었잖아.

김정미 : 그래도 이제 본명 불러줄래?

김주원 : 알겠어. 정미라는 이름 조금 어색하지만 나한테는.

김정미 : 아, 그래? 그러면 반반씩 써줘.

김주원 : 그래. 정미야, 정미야, 정미야.

김정미 : (웃음)

김주원 : 정미야.

김정미 : 응.

김주원 : 그래서 너는 내 어떤 면이 마음에 드니?

김정미 : 나 얘기했는데.

김주원 : 다시 똑바로 말해 줄래?

김정미 : (웃음)

김주원 : 한 번 얘기했지만 두 번은 얘기 안 해도 돼?

김정미 : 뭐 오빠는 두 번 얘기해 줄 거야?



김주원 : 그럼.

김정미 : 아, 진짜?

김주원 : 그럼. 백 번도 얘기해 줄게.

김정미 : 나는 근데 진짜 내가 이상형 얘기하면 진짜 1순위로 말하는 게 있어.

김주원 : 뭔데?

김정미 : 그게 뭘 거 같아? 근데 그거는 내가 술집에서 바로 얘기했는데. 그 곤두 있었을 때.

김주원 : 몰라. 기억 안 나.

김정미 :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거 아니야?

김주원 : 뭐였지? 키?

김정미 : 어, 나 키 큰 사람 좋아해.

김주원 : 맞아, 얘기했던 거 같다.

김정미 : 어. 근데 막 그렇게 특방에서는 티를 안 내지. 나 특방에서는 절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을걸? 그냥 약간 그런 얘기가 남들한테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김주원 : 응, 그렇지, 그렇지.



김정미 : 응.

김주원 : 그리고?

김정미 : 그리고? 나는 약간 좀 그냥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이거 되게 답한 내용인데.

김주원 : 난데? 난데? 이거 난데?

김정미 : (웃음)

김주원 : 어떡하지? 난데?

김정미 : 아니, 그래서 나는 오빠 맨 처음에 만나기 전에 나 그 특방에서 되게 깜짝 깜짝 놀랐어 그래서.

김주원 : 왜?

김정미 : 내가 얘기했잖아. 막 되게 직장인들이 뭐 하기 힘든데 막 준비한 거 되게 많고 뭔가 막 계속 하려고 하고.

김주원 : 아, 이제 뭐 안 할 거야, 미안한데.

김정미 : (웃음) 왜 안 할 거야?

김주원 : 어? 내가 했던 것들은,

김정미 : 근데 나는 그거는 싫었어.



김주원 : 더 잘 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야.

김정미 : 아, 진짜?

김주원 : 어. ‘내가 더 잘 나가겠다. 돈을 모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해볼까?’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라 이거는 나는 낭비하는 삶이 맞는 거 같다.

김정미 : 아, 그래?

김주원 : 그럼. 난 좀 그런, 좀 다르게 생각해.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

김정미 : 아, 진짜?

김주원 : 난 내가 좋아.

김정미 : 응, 알았어.

김주원 : 응. 근데 모르겠다. 뭐 쉴 때는 하염없이 쉬거든.

김정미 : 그건 나쁘지 않지.

김주원 : 근데 재밌는 거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는 거지. 항상 나는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삶을. 그렇다고 이제 좀 나쁜 행동들은 하지 않지. 나한테 좀 실이 될 행동들은 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다. 너무 그런 거에 기대하면 또 실망이 클 거다. 난 너보다 지혜롭지 못 하거든.



김정미 : 그래?

김주원 : 응, 나는 너가 진짜 지혜롭다 생각하거든.

김정미 : 난 잘 모르겠어.

김주원 : 아니야. 넌 말하는 것만 봐도, 대화의 내용들만 봐도 더 의리도 있으시고.

김정미 : 아니, 의리는 당연히 지켜줘야죠. (웃음) 지켜줬어야지.

김주원 :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

김정미 : 아, 진짜?

김주원 : 응.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 방금 그 전 방만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바로 ‘아, 새로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전 방 얘기는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김정미 : 아…,

김주원 :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니까 관심 없는 거야. 근데 충분히 공감 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나는 안 그러거든. 나는 누가 예를 들어서 두 팔이 형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방에서 왕따당하는 거 같다고 했을 때 난 내가 먼저 나서서 얘기한단 말이야. 난 그런 꼴은 못 봐.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일 아니면 관심 없고 자기의 즐거움만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거의 대다수가 보통 그래. 남 일은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정미 : 맞아. 그거는 맞아.

김주원 : 근데 나는 그 꼴은 못 보거든. 남 일이어도 아닌 건 아니야, 나는. 맞는 건 맞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못 참아. 근데 못 참는 게 막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

김정미 :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이잖아.

김주원 : 난 부끄러운 삶은 살고 싶지 않아, 누가 봐도. 부끄러운 행동도 하긴 하는데, 하긴 하지만 좀 덜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 하여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나.

김정미 : 그래? 근데 난 그렇게 보였어.

김주원 : 뭐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고. 여보세요?

김정미 : 응. 근데 막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첫날 만나자마자 난 그럴 줄은 몰랐어.

김주원 : 섹스를 할 줄 몰랐다고?

김정미 :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바로 되게 어쨌든 오빠가 되게 적극적이었던 거지.

김주원 : 아, 마음에 드니까. 예쁘잖아. 너 예쁘잖아.

김정미 : (웃음) 그래서 나 계속 송도로 오라고 한 거야?

김주원 : 아니, 그럴 의도는 없었어.

김정미 : 아, 진짜? (웃음)

김주원 : 막 사귀려고 송도로 오라고 한 건 아니고, 나는 근데 너가 지혜롭다고 생각 했잖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우선 내가 외모를 모르니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사귀어보자, 그런 호감으로 보자고 한 것보단 난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사람 괜찮아보였거든. 너의 직장도 그렇고 제약 다니는 것도 그렇고 또 나랑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잘 통할 거 같고. 그리고 너는 되게 지혜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나한테 한 얘기들 말고도 방에서 한 얘기들 보면 너가 무슨 말했을 때 다 맞는 말이야.

김정미 : 아, 그래?

김주원 : 어, 난 그렇게 생각해. 뭐 내가 토 달 그게 없어. 나는 뭔가 좀 그런 멍청한 소리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 답답한 소리하거나 멍청한 소리하는 거 안 좋아해. 대개 멍청한 소리라는 건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잘못된 말들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어. 근데 그러면 난 바로잡으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 방에서도 그렇고 나한테서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해도 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이걸 다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랑 생각이 다를지언정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충분히 난 납득이 가. 그런 점들이 난 되게 좋았고. 이런 점들이 좋은 이유는 내가 이전에 연애했을 때 연상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난 그 사람도 되



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어,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페미니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대두됐을 때야.

김정미 : 아, 맞아. 한때 그런 적 있었어.

김주원 : 근데 난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아, 그런 거 왜 해?’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페미니즘이 뜨기 전부터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페미니즘이었다고. 엄청 오래된 거지.

김정미 : 아, 진짜? 나는 근데 나는 관심 없어.

김주원 : 그렇지? 완전 근본이었던 거야.

김정미 : 나 진짜 관심 없어, 그거는. 왜냐하면 그 페미니즘도 나는 그거 하나의 편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김주원 : 아니, 뭐, 얘기를 들어봐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너무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근본부터 나한테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켜주는데 나는 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내 속으로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듣고 ‘어, 맞다. 이게 맞다. 그 말이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김정미 : 아-

김주원 : 그런 불편한 점들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논문까지 들고 와.

김정미 : (웃음) 근데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김주원 : 심지어 논문을 들이밀어. 아니, 근데 뭐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내 자신이 행복하겠구나. 그런 사람들과 나는 되게 그런 행복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야. 페미니즘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든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근데 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난 다 맞다고 생각했거든. 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가 말하니까 ‘어, 이거 맞아. 이거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김정미 : (웃음)

김주원 : 그래서 이제 너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우선 컸고. 그리고 너 계속 내가 오라는 것도 난 당연히 너가 안 올 줄 알았어, 당연히.

김정미 : 아, 진짜?

김주원 : 난 장난으로 하는 말들이었어.

김정미 : 아이, 근데 봐봐.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만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좀 있었어.

김주원 : 난 너, 마음에 드니까. 너가 되게 좋다고 생각, 몇 명 있거든? 너랑 두팔이



형, 그리고 조아. 조아도 성격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애는 그 지혜롭다기 보다는 좀 착해, 사람이. 좀 인성이 착해. 애는 좀 근데 애도 지밖에 모르긴 한데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착해 하여튼.

김정미 : 내가 조아언니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김주원 : 조아도 착해. 착한데 이제 본인의 그게 있어. 줯대가 있어. 그 줯대 안에서 착해. 그런 편이야. 하여간 뭐 그랬었다.

김정미 : 그래서 ‘내가 한번 가긴 가야겠다. 아니면 불러야겠다.’ 이 생각은 했어. 근데 막 그래서 또 누가 막 레이디퍼스트 이래서 내가 그냥 간 거야.

김주원 : 진짜로?

김정미 : 응.

김주원 : 나는 그냥 오라고 한 게 당연히 너가 강남 가려다가 안 간다 했잖아. 잘 안 됐잖아. 그래서 난 그냥 장난으로 그냥 ‘그럼 인천 고?’ 막 이런 건데 그걸 너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다시 올려봤잖아. 온다고 해서 다시 올려봤잖아. 너 온다길래 아, 그럼 만나야겠다. 근데 송도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없어진다.

김정미 : 그래서 곤듀오빠를 불렀구나.

김주원 : 그래서 곤듀형한테 물어봤지. 곤듀형 맨날 술 먹자고 하거든. 자주 했었거든. 근데 내가 한 번인가 째어. 그래서 그 뒤에 금요일에 내가 곤듀형이랑

마신 거고 미안해서 내가 아, 형 (...) 마시고. 근데 혹시나 올까 해서 물어 봤는데 역시나 온대.

김정미 : 아, 진짜? 나는,

김주원 : 그러니까 너라서 온 거야, 너라서. 미정이라서 온 거야. “미정이 온대?” 그래서 온 거야.

김정미 : 아- 나는 거절할 줄 알았어.

김주원 : 내가?

김정미 : 아니, 아니. 곤두오빠도.

김주원 : 아, 곤두형도 힘들면 거절했겠지. 근데 곤두형도 심심하니까. 내가 곤두형 이랑 좀 자주 만나야겠다 생각했어. 가까우니까.

김정미 : 근데 되게, 응. 되게 일단 재밌고 뭔가 그분도 약간 그게 있어. 뭔가 막 약간 충고를 되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김주원 : 어, 맞아. 그 형 좋아. 형 좋아. 나도 몇 명 이렇게 사람 보면 느끼는데 괜 찮은 사람 같아.

김정미 : 응.

김주원 : 괜히 거짓된 말들을 할 것 같진 않아. 그냥 확실하게 자기 생각과 그런 것 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 같아서 좋아.

김정미 : 응.

김주원 : 뭐 그렇다. 하여튼 뭐..., 근데 그 와중에 너는 가슴이 엄청 크고.

김정미 : (웃음)

김주원 : 뭐 좋았다. 글래머시니까.

김정미 : 그래서 잘 맞다고 한 거야?

김주원 : 아니, 그거는 잘 맞는 거는 잘 조여서.

김정미 : (웃음) 나는 그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김주원 : 아, 그래?

김정미 : 어.

김주원 : 미안해.

김정미 : 솔직히 너무 당황한 게 너무 컸어.

김주원 : 어, 어.

김정미 : 내가 얘기했잖아.

김주원 : 어, 너 안 좋아한다고.

김정미 : 응.

김주원 : 원래 안 좋아해?

김정미 :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때문에 막 되게 많이 헤어졌다 그랬잖아.

김주원 : 아예 안 하고?

김정미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그러니까 스킨십 때문에 헤어졌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했었어.

김주원 : (...) 헤어졌다고 했는데,

김정미 : 어, 근데,

김주원 : 그게 너가 안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헤어진 거야, 아니면 했었지만 그 뒤로도 별로 안 좋아해서 헤어진 거야?

김정미 : 아, 아니야. 나 안 했어.

김주원 : 내가 처음이라며.

김정미 : 어.

김주원 : 그 자체가 처음이라며.

김정미 : 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약간 그냥 내가 연애할 때 기준을 좀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만났단 말이야.

김주원 : 어.

김정미 : 응. 근데 뭐 다들 솔직히 말해서 막 썸탈 때도 그냥 몸매부터 얘기하고 그런 사람 진짜 많았고.

김주원 : 너 몸매가 그렇게 좋았어? 아, 말랐을 때?

김정미 : 나 몸매 때문에 번호 많이 따였는데?

김주원 : 말랐을 때? 아니면 지금?

김정미 : 말랐을 때.

김주원 : 말랐을 때?

김정미 : 어.

김주원 : 어.

김정미 :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막 약간 번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만나면 되게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스킨십부터 하려는 거야.

김주원 : 응.

김정미 : 어, 나는 그래서 싫었었거든.

김주원 : 그래서 한번도 안 했어?



김정미 :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남자친구네 집을 가서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김주원 : 근데 진짜 피가 묻어있긴 하더라.

김정미 : 어디에? 이불에?

김주원 : 어, 이불에.

김정미 : 그래. 난 거짓말 안 해.

김주원 : 아, 그랬구나.

김정미 : 왜? 내가 처음이다 할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

김주원 : 어, 나는,

김정미 : 근데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진짜 여자애들 중에서.

김주원 : 아니,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너가 이제 서른인가?

김정미 : 응.

김주원 :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난 사실 하진 못 했지.

김정미 : 응. 근데 아무튼 나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빼고 되게 오래,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간 사람이 없었어.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 나는.

김주원 : 3개월 동안 어떻게 안 하나. 말도 안 돼.

김정미 : 어?

김주원 : 말도 안 돼.

김정미 : 뭐가 말도 안 돼?

김주원 :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김정미 : 아, 아니, 근데 그때는 지금은 내가 서른이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20대 중반 이랬어. 그러니까 30,

김주원 : 그래도,

김정미 :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썸만 타고 끝났고,

김주원 : 아, 그랬어?

김정미 : 응.

김주원 : 근데 뭐 어떡하냐 이제 나랑 했는데. 넌 나랑 결혼해야겠네. 그거 나 그 뭐야, 첫경험상대가 결혼상대가 되는 거네. 미쳤다. 좀 멋있는데?

김장미 : (웃음)

김주원 : 좀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아, 그래서 좀,

김정미 :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었어.

김주원 : 요즘에?

김정미 : 그러니까 요즘도 그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항상 거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의 80%는 다 몸 얘기를 되게 먼저 많이 꺼냈던 말이야?

김주원 : 몸매 좋으니까 칭찬이잖아.

김정미 :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다고.

김주원 : 왜? 칭찬, 칭찬은 칭찬으로만 받아들이면 되지. 칭찬은 칭찬이지.

김정미 : 아무튼 그랬어. 근데 나한테는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어, 내가.

김주원 : 근데 칭찬이야. 좋은 건 좋은 거잖아.

김정미 : 응.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애는 몸 밝히는 애?’ 이려고 내가 되게 받아들였어. 말하는 투나 이런 걸 봤을 때.

김주원 : 아니, 몸 당연히 밝힐 수 있지. 그게 왜? 잘못됐냐?

김정미 : 아, 그래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얘기하는 건 아니지.

김주원 : 뭐, 그래? 난 이해하는데?

김정미 : 아, 그래?

김주원 : 그럼. 뭐 누군갈 만났어. 내가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칭찬을 하고 싶어. 칭찬의 종류가 많잖아? 성격적인 칭찬도 있고 외모도 있고 몸매도 있고. 근데 몸매가 진짜 좋으면 ‘근데 몸매가 진짜 좋으신 거 같다.’ 그럴 수 있지.

김정미 : 아, 그래?

김주원 : 그럼. 보이는 대로 하는 건데. 그게 상대방한테 되게, 왜냐하면 진짜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남자는 착각할 수 있잖아.

김정미 : 아, 그래?

김주원 :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라고 하려고 했겠냐.

김정미 : 그냥 내가 싫었던 걸로, 내가 싫었던 걸로 그냥 치자. 그만큼 내가 안 좋아했던 걸로. 그게 더 맞는 거 같아.

김주원 : 그럼.

김정미 : 응.

김주원 : 나로 만족해야지 뭐 이제 어찌겠어. 어찌시겠어요, 이제. 이제 나 만족해야



지. 이미 난 저질렀어. 뭐 사귀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김정미 : 그래서 그게 고백하신 거예요?

김주원 : 아이, 고백은 만나서 하겠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김정미 : 예.

김주원 : 머릿속으로 걱정했잖아, 너도 내가. 걱정이 됐을 거 같아, 너도.

김정미 : 응.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를 만나서 얘기할라 했는데 근데 너무 뒀니까
만나는 게. 그래서 그냥 빨리,

김주원 : 그건 그래. 장난하진 않을게. 나도 좋아. 같이 다이어트 하자 근데. 슬렌더
가자. 할 수 있다. 나도 슬렌더 해볼게.

김정미 : (웃음) 아니, 슬렌더 말고 근육 키워줄래?

김주원 : 근육은 더 어렵잖아. 살 빼는 게 더 쉽잖아.

김정미 : (웃음) 그렇지, 살 빼는 게 더 쉽지. 근데 아니야, 오빠는 살 별로 안 쪼어.

김주원 : 헬스는 너 같이 하면 해볼게.

김정미 : 헬스는 내가 몸 만들고 같이 하자.

김주원 : 그래.

김정미 : 응.

김주원 : 근데 너 금방 만들 거 같아. 한 서너 달이면 만들 거 같아.

김정미 : 서너 달까지 주시는 거예요?

김주원 :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너 근데 진짜 금방 할 거 같긴 해.

김정미 : 근데 진짜 그 백일의 기적이라고 그게 있어, 몸은. 진짜 그건 있어.

김주원 : 다시 돌아와, 백일 안에 하면?

김정미 : 응? 아니, 아니. 백일을 하면 진짜 몸이 확 진짜 되게 좋아져. 왜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 막 곰이랑 호랑이랑 썩이랑 마늘 먹고 인간 됐다고. 그거 백일이잖아. 그래서 막 약간 헬스 운동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그게 약간 있더라고. 백일의 기적. 막 이러면서.

김주원 : 지금 얼마나 됐어? 며칠 됐어, 그럼?

김정미 : 나?

김주원 : 응.

김정미 : 근데 술 먹은 거 이후로 쳐야 되지 않아?

김주원 : 뭐 상관없지. 빼고 있다면. 술 먹은 거 이후로?

김정미 : 어?



김주원 : 술 먹은 거 이후로 매일 하고 있어?

김정미 : 어, 나 지금 술 먹은 거 이후로, 아니, 나 어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아, 나 지금 목이 되게 잠긴다.

김주원 : 대단하긴 하다, 너.

김정미 : 근데 나 어제는 진짜 살 빼려고 안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어제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

김주원 : 근데 아, 나 너랑 결혼해야겠다.

김정미 : 왜?

김주원 : 내 의지도 그렇고 나보다 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다, 너가.

김정미 : (한숨)

김주원 : 너 되게 멋있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역시나 내 눈은 틀리지 않아.

김정미 : 나는 근데 하면 좀 하고 근데 안 하면 진짜 아예 안 해. 그거는 있어.

김주원 : 같이 하다가,

김정미 : 근데 나는 어중간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

김주원 : 어. 연애도 화끈하게?



김정미 : (웃음) 어떻게 원해?

김주원 : 뭐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근데 얘기할 거 있어. 나는 연애하면 만나면 한 번은 무조건 할 거야.

김정미 : 응. 알았어.

김주원 : 뭐 야외데이트라면 괜찮은데 그런 거 아니라면 난 무조건 할 거야.

김정미 : 어, 나는 그건 싫어.

김주원 : 하는 걸?

김정미 : 아니, 공공.

김주원 : 아, 나 야외, 나도 야외에서는,

김정미 : 근데 막 보면 막 영화관에서 했다고 그거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잖아. 나 그거 진짜 싫어해.

김주원 : 그거는 진짜 얘기 때나 그런 호기심에 하는 거고. 그럴 나이는 난 이미 지났고. 근데 성욕은 전 좀 있습니다.

김정미 : 어떤 거?

김주원 : 성욕은 좀 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김정미 : 그런 거 같아요. 저를 첫날부터…,

김주원 : 우리가 잘 맞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아프거나 너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알게 해드릴게요. 잘 교육시켜드리죠.

김정미 : 선생님이나고요.

김주원 : 그럼요. 전남친 작품이 아니시니까. 이제 자야겠다. 즐려.

김정미 : 알았어.

김주원 : 일어나면 카톡해.

김정미 : 어? 기침하던데?

김주원 : 나? 어, 좀 추워서 그랬나봐. 에어컨 틀어서.

김정미 : 아-

김주원 : 얼른 주무시고요. 저로 만족하시고요. 기분 좋은 꿈 꾸시고요.

김정미 : 그래서 화, 수, 목 중에 온다고?

김주원 : 응, 그렇게.

김정미 : 응.

김주원 : 나 원래 일요일에 갈까 했는데 일요일은 너가 안 되니까 화, 수, 목 중에 갈게.

김정미 : 응.

김주원 : 퇴근하고 바로 그냥 편하게 갈게.

김정미 : 어, 근데 오빠가 퇴근하고 바로 가면 오빠가 기다려야 되잖아.

김주원 : 나 6시 반이면 갈 텐데.

김정미 : 그러니까 내가 7시 조금 넘어서 오는데.

김주원 : 7시 좀 넘어서?

김정미 : 응.

김주원 : 그럼 카페 가있지 뭐. 근데 집에 들렀다 가기엔 좀 애매하고.

김정미 : 아- 차 끌고 올 거야?

김주원 : 그래야지. 차 안 끌고 어떻게 가. 다음 날 출근도 해야 되니까.

김정미 : 알겠습니다.

김주원 : 예.

김정미 : 응?

김주원 : 예. 얼른 주무세요.

김정미 : 예.



김주원 : 예.

김정미 : 잘자.

김주원 : 너도 잘자.

김정미 : 응.

.....
끝.
.....

상 호	경청속기사무소	담 당 속 기 사	신 민 재
사업자등록번호	194-26-00377	국가기술 자격번호	20-G1-RT0159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릉빌딩 3층 경청속기		
종 목	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		



경청속기사무소

www.kac67.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릉빌딩 3층 301호

TEL : 02) 2055-0402 / FAX : 050) 8098-0402 / E-Mail : kac67@naver.com

녹취록



경청속기사무소

www.kac67.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릉빌딩 3층 301호

TEL : 02) 2055-0402 / FAX : 050) 8098-0402 / E-Mail : kac67@naver.com

녹취록

녹음 일시	2024년 07월 06일 22시 44분
녹음 장소	전화통화
녹음 파일	통화 녹음 김주원_240706_224406
대화자	김정미 / 김주원
작성 일자	2024년 07월 10일

본 녹취록은 의뢰받은 녹음내용과 상위(相違) 없이 기록되었음을 증명함.

담당속기사 신민재



속기사무소

- 본문의 녹음일시, 장소, 대화자 등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의 주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은 녹음상태의 미비 등으로 인한 청취불능을 뜻함.
- 녹음청취의 미비로 인한 명사 등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 있음.

○ 녹 음 일 시 : 2024년 07월 06일 22시 44분

○ 녹 음 장 소 : 전화통화

○ 대 화 자 : 김정미 / 김주원

대 화 내 용

파일명 : 통화 녹음 김주원_240706_224406

김주원 : 어, 여보세요?

김정미 : 여보세요?

김주원 : 집이야?

김정미 : 아니, 나 가고 있는데.

김주원 : 뭐라고?

김정미 : 가고 있다고.

김주원 : 어딜 가고 있어?

김정미 : 집에.



김주원 : 아, 어디 갔다 왔는데?

김정미 : 아, 나 그냥 친구 만났어.

김주원 : 그냥 친구 만나고 왔다고?

김정미 : 어.

김주원 : 택시야?

김정미 : 아니. 내 차인데.

김주원 : 차야?

김정미 : 어.

김주원 : 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왜 그래, 너?

김정미 : 너 나 차단했잖아.

김주원 : 뭐라고?

김정미 : 차단했잖아.

김주원 : 계속 전화하니까.

김정미 : 아는데? 전화할 때부터 신호가 안 오던데?

김주원 : 전화할 때부터 신호가 안 왔다고?



김정미 : 응.

김주원 : (...) 차단했어. 계속 전화해서.

김정미 : 전화해서 차단했다고? 아닌데? 내가 전화할 때부터 차단돼있던데?

김주원 : 아니야. 원래 방해금지모드였어.

김정미 : (...).

김주원 : 뭐라고? 뭐라고?

김정미 : 너 나 먹고 버린 거잖아.

김주원 : 뭐라고?

김정미 : 먹고 버린 거 아니야?

김주원 : 먹고 버렸다고?

김정미 : 어.

김주원 : 왜 그렇게 생각하지? 연락을 안 받아서?

김정미 : 차단했으니까.

김주원 : 전혀 먹고 버린 거 아닙니다.

김정미 : 진짜로?



김주원 : 나는 너랑 한 번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김정미 : 근데 연락,

김주원 : 수백 번 할 거야.

김정미 : 뭐라고?

김주원 : 수백 번 할 거라고.

김정미 : 뭐라고?

김주원 : 수백 번 할 거라고.

김정미 : 너..., 아니, 사귀다고 한 사람이 차단하진 않잖아.

김주원 : 아,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니까 굳이 계속 연락,

김정미 :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김주원 : 나 계속 전화했어, 아침까지 어제 저녁부터.

김정미 : 너 새벽 2시에 전화했잖아.

김주원 : 그래, 그때 들어갔으니까.

김정미 : 어. 근데 그게 왜?

김주원 : 아니, 아침까지 계속 전화했어, 말하려고. 근데 말이 없더만. 받질 않더만



아예.

김정미 : 너 10시 10 몇 분에 전화했던데. 그래서 내가 핸드폰 늦게 봐서 30 몇 분
에 바로 전화했었는데 했을 때는 바로 차단되어있던데?

김주원 : 아, 진짜? 아니야. 나 계속 방해금지모드로 하고 있었어.

김정미 : 방해금지모드로 돼 있다고?

김주원 : 어.

김정미 : 근데 내가 바로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는 바로,

김주원 : 아, 그거는 1시인가? 그러지 않았냐?

김정미 : 내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안 돼서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한 건데?

김주원 : 그 뒤로 차단했다고.

김정미 : 응.

김주원 : 근데 아버지 핸드폰으로 그래서 전화를 했어? 나 그때 좀 충격적이었어.

김정미 : 왜?

김주원 : ‘마음이 급한가? 왜 이러지?’

김정미 : 아니, 차단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김주원 : 뭐가 말이 안 돼?

김정미 : 아니, 만약에 내가 전화를 많이 했으면 카톡으로 그냥 ‘일 있어서 이따 전화해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문자도 보냈는데 아니고.

김주원 :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할라 했어.

김정미 : 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싫다 했는데 했잖아.

김주원 : 어.

김정미 : 어. 그러니까 왜 했어?

김주원 : 좋으니까.

김정미 :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왜 차단하는데?

김주원 : 아니, 그래서 전화했잖아.

김정미 : 아니, 차단, 지금은 전화하는 건데 아까는 차단되어있잖아.

김주원 : 아니, 아까는 내가 쉬려고. 오늘 나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미 : 아니, 일정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차단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걸? 일정 있다고?

김주원 : 나도 내 일정 있을 때 연락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런 방도 들어갔다가 주말



에 나가고 연락하고 싶을 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김정미 : 그러면 그냥 ‘나 나 시간 있어서 연락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잖아.

김주원 : 아, 그 말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길래 나도 그때 나온 거야. 10시 반
인가 그때 나왔어. 10시 한 10 몇 분에 그때 나왔어.

김정미 : 어.

김주원 : 나도 내 시간 보내려고,

김정미 : 근데 다른 사람들 거는 차단 안 하고 내 것만 차단한 게 말이 안 되잖아.

김주원 : 다른 사람들 거 누굴 차단 안 해?

김정미 : 우리 아빠 거 안 돼 있는데?

김주원 : 나 그 연락하던, 아, 그건 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차단 안 했지. 어
떻게 알아. 뭐 그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주차문제로 전화 왔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받은 거지.

김정미 : 그럼 방식이 너는,

김주원 : (...) 앞에 대서 ‘아, 차 때문에 전화 왔구나.’ 하고 전화 받은 건데.

김정미 : 아니, 차단도 사실 한 명, 한 명 다 해야 되잖아.



김주원 : 나 그 방에 있는 사람 다 차단해놨어.

김정미 : 방이 어디 있는데?

김주원 : 우리 방에서 연락했던 사람들 있잖아. 나 개인으로 다 번호 있으니까.

김정미 : 어. 근데 거기에 왜 나까지 포함되어있는데?

김주원 : 너랑 나랑 지금 사귀는 관계가 아니잖아.

김정미 : 너 지금까지는,

김주원 : 호감이 있고 썸이고 사귀고 싶지만 아직 사귀는 관계는 아니잖아.

김정미 : 너 그냥 섹스하고 싶어서 너 나하고 사귀자고 하고 결혼하자고, 하라고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장인, 장모라고 하고. 그냥 너 그냥 (...),

김주원 : 아니, 그게 사귀 이후의 행동인 거 아니야?

김정미 : 너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김주원 : 내가 너한테 연락하고 그런 의무들이? 너가 나한테 그래서 오케이 했어, 사귀자고?

김정미 : 뭐라고?

김주원 : 너가 나한테 그래서 오케이 했냐고.



김정미 : 오케이 안 했지.

김주원 : 그래.

김정미 : 근데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섹스를 했어? 나는 거부를 했는데?

김주원 :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니?

김정미 : 응.

김주원 : 섹스를 한 게 기분이 나쁜 거야, 섹스하고 연락을 안 받은 게 기분이 나쁜 거야?

김정미 : 나 차단한 게 기분이 나빴어, 처음엔.

김주원 : 그럼 ‘왜 섹스를 했어?’라고 말을 하지?

김정미 : 그거는 좀 말이 아닌 거 같은데.

김주원 : 내가 말이 아닌 거 같다고?

김정미 : 어. 아니, 봐봐. 너 내가 거부했는데 했잖아. 근데 너가 갑자기 주말에 나를 차단했어. 그러면 내가 느낄, 내가 뭐라고 느낄까? 계속 싫다고도 얘기했었는데. 너 집에 있을 때.

김주원 : ‘연락을 안 받은 게 다시 생각해보니 섹스를 강제로 했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지금?

김정미 : 응. 아니, 너 내 기분 생각 안 해봤냐고. 그러니까 요즘, 그냥 먹고 버린 거 아닌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니가 내 입장이었다면,

김주원 : 나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너가 나한테 계속 ‘강제로 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조금 충격적이네.

김정미 : 그게 왜 충격인데? 아니, 봐봐. 너,

김주원 : 연락을 안 받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연락을 안 받아서 기분이 나빴다. 나를 차단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해를 하겠어.

김정미 : 어.

김주원 : 근데 그 문제에서 ‘강제로 관계를 했다. 싫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네.

김정미 : 나는 솔직히 너가 차단한 게 그냥 싫었거든. 근데 너 내 입장 생각 안 하냐고.

김주원 : 근데 그 입장을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니 입장을 생각하는 거까지 애기를 해서 강제로 관계를 했다까지 나가는 게 난 좀 너가 무섭네?

김정미 : 그러니까 딱 버 아니야?

김주원 : 나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김정미 : 아니야?

김주원 : 먹버든 아니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이런 말로 얘기하는 게 나는 너
가 좀 무서워. 좀 그렇네. 좀, 그렇구나. 연락의 문제를 떠나서 니 감정이
나쁘기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너
가 지금 내가 연락을 차단해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너
강제로 했네.’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김정미 : 어, 맞아. 싫다고 했으면 원래 안 하는 게 맞잖아. 좋아하면 사람이면. 그리
고 좋아하는 사람 차단 안 하잖아, 보통 일반 사람들은. 너가, 너는 내가
좋아해서 했다고 했는데,

김주원 : 내가 차단하고 연락을 안 했어, 그냥 그 뒤로?

김정미 : 지금 한 거잖아. 너 지금 몇 시간 만에 한 거야.

김주원 : 내가 뭐 며칠 지나서 연락했니?

김정미 :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누가 좋아하는 사람 차단하냐고.

김주원 : 누가 일반적이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난 내가 쉬려고 차단했어. 나 쉬려
고.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너가 싫어서 연락하기 싫은 건 아니
고 내 시간 보내려고 그런 거야. 근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카톡 안
보내놔서. 너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어.

김정미 : 응.



김주원 :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하는 너의 말들이 난 그게 더 충격적이야. 뭐 너도 너의 입장이 있겠지만 나도 내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어. 섹스한 이후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했든 그 상황 속에서 술 마시고 했든 그 뒤에 너와 나의 그런 관계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뭐 다음 주도 나 용인 갈 거고.

김정미 : 응.

김주원 : 당연히 이번 주에 만나면 사귀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김정미 : 응.

김주원 : 근데 아직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 연락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김정미 : 응.

김주원 : 내가 널 좋아하든, 너가 날 좋아하든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김정미 : 응. 근데 썸 사이도 솔직히 말해서 차단하진 않아.

김주원 : 그건 뭐 너의 생각이고. 일반적이라고 하면 난 잘 모르겠어. 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 근데 난 이래. 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난 이래.

김정미 : 그래.

김주원 :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너가 나 아니라고 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중에 ‘강압적으로 섹스를 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나를 협박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것도.

김정미 : 응. 일단은 그냥 너는 섹스하고 싶어서 그렇게 싫다는데 한 거고 지금 너의 행동은 그냥 먹버 같은데.

김주원 : 나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했어. 먹버였으면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 너한테 지금.

김정미 : 그래?

김주원 : 응.

김정미 : 그럼 일단은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도 되지? 여보세요?

김주원 : 아니, 지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김정미 : 지금?

김주원 : 응.

김정미 : 근데 난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김주원 : 떡버였으면 연락하지 않았어. 너한테 그렇게 왔을 때 연락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겠지.

김정미 : 근데 나 잠깐 끊어도 돼? 나 진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김주원 : 눈물이 나서 그러는 거야?

김정미 : 응.

김주원 : 뭐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화가 나? 떡버라고 계속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 나는. 난 너 마음에 들어. 좋아. 근데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니까 뭐,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이렇게 늦게 들어갈 줄 몰랐어. 동탄 가서 얘기 보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갈 줄은 몰랐어. 늦게 연락한 건 미안해. 나 한 6시쯤에 집에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친구들 잠깐 만나서 좀 늦었어. 근데 나도 내 삶이 있잖아. 뭐 연락 하루 안 했다고,

김정미 : 아니, 그러니까 연락 안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주원 : 그러면?

김정미 : 차단한 거를 얘기한 거고.

김주원 : 아니, 연락 계속 올 거니까 굳이 나도 핸드폰 자주 보진 않지만 전화 오는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김정미 : 그러니까 차단 말고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잖아.

김주원 : 그래서 그건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 얘기했잖아.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냥 놀 생각에 별 생각 없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이따 연락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어. 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미안해.

김정미 : 일단 알겠어. 나 끊을게. 끊는다?

김주원 : 그래.

.....
끝.
.....

상 호	경청속기사무소	담 당 속 기 사	신 민 재
사업자등록번호	194-26-00377	국가기술 자격번호	20-G1-RT0159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릉빌딩 3층 경청속기		
종 목	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		



경청속기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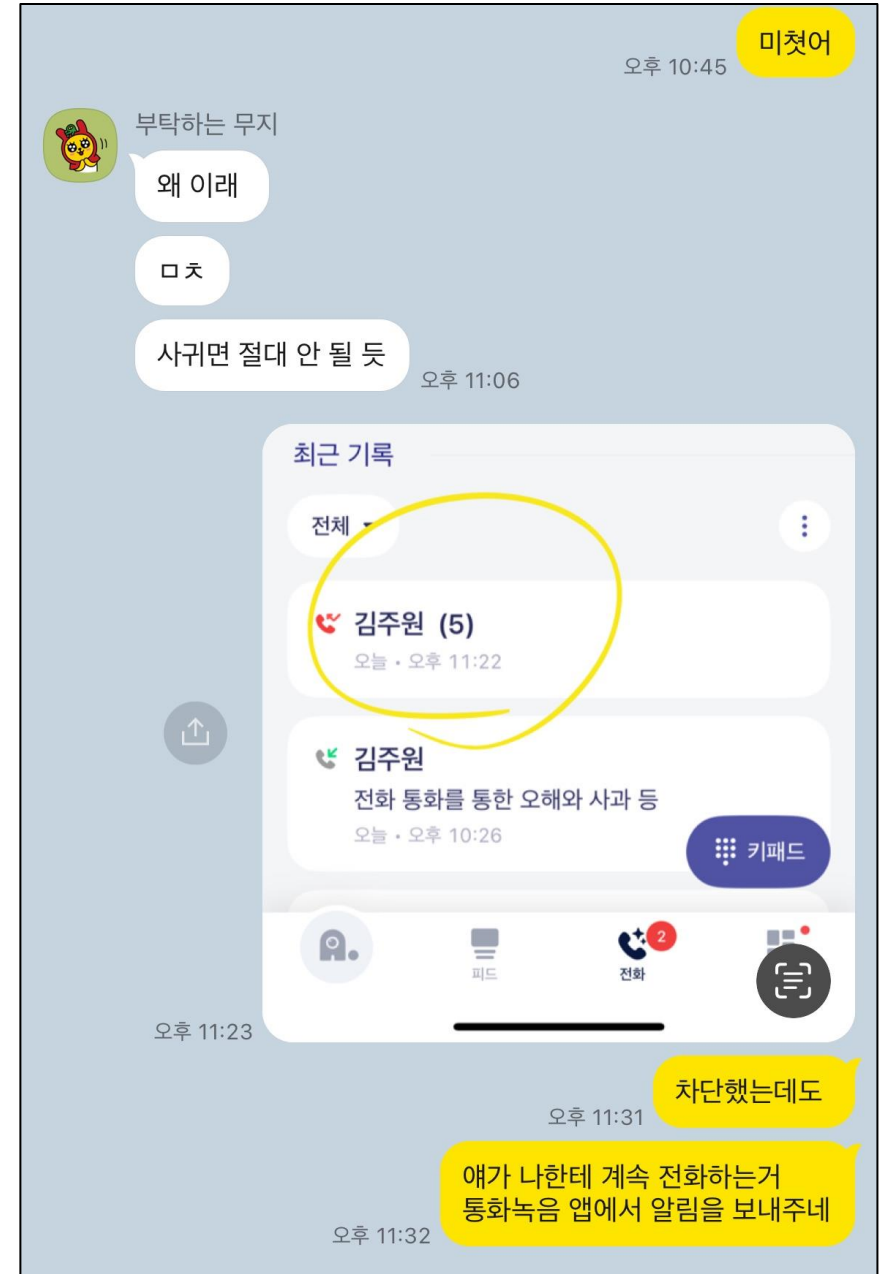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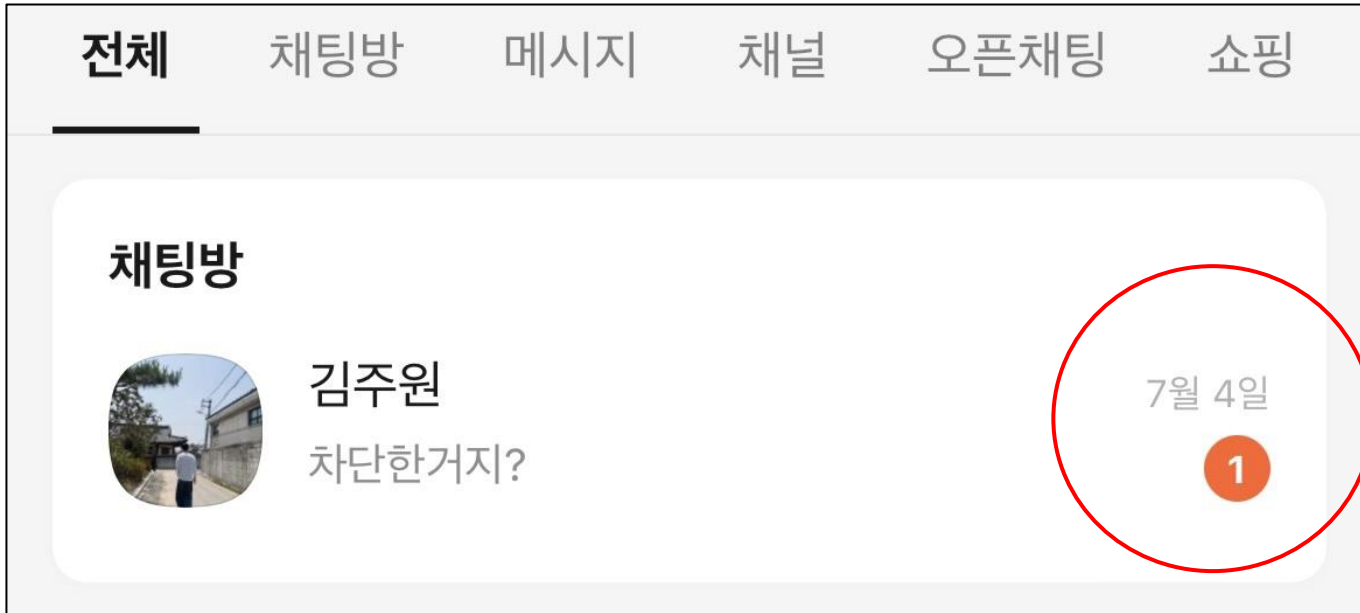
www.kac67.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릉빌딩 3층 301호

TEL : 02) 2055-0402 / FAX : 050) 8098-0402 / E-Mail : kac6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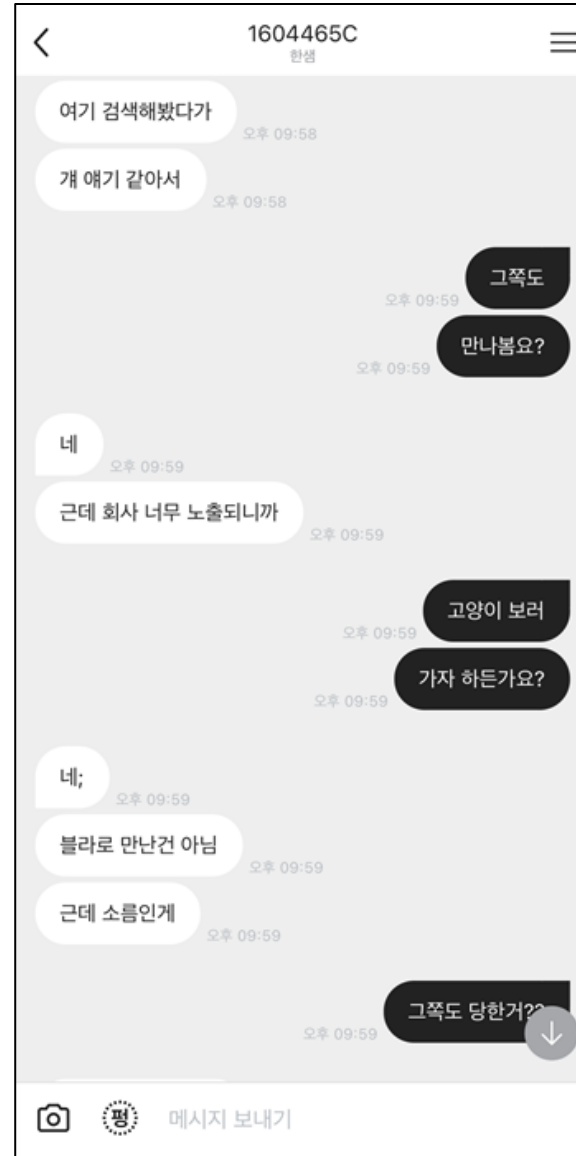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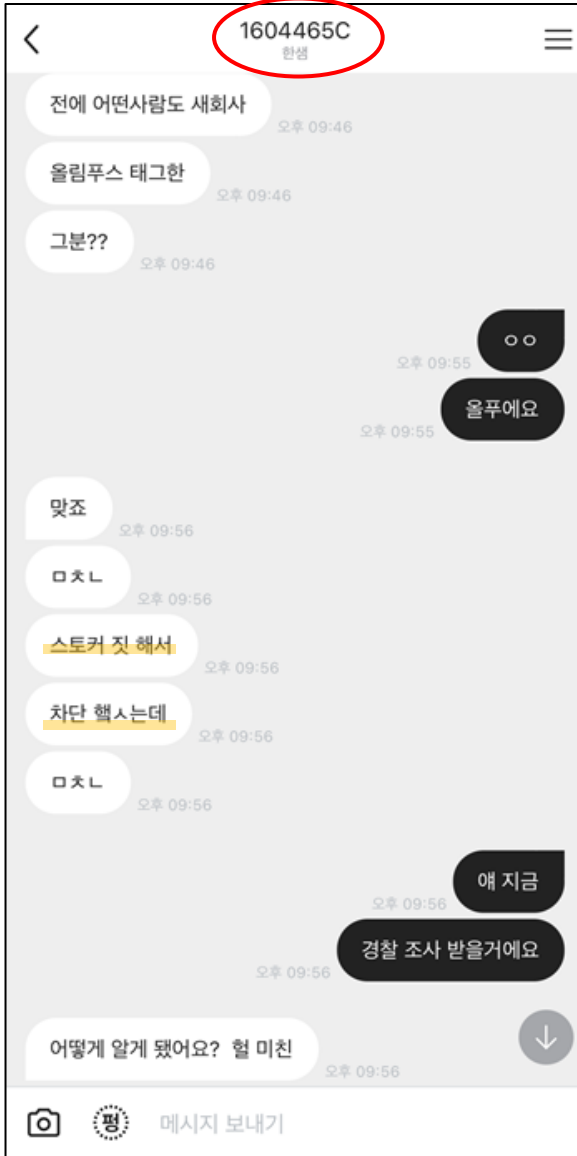
김주원 관련 제보

2024.07.04 익명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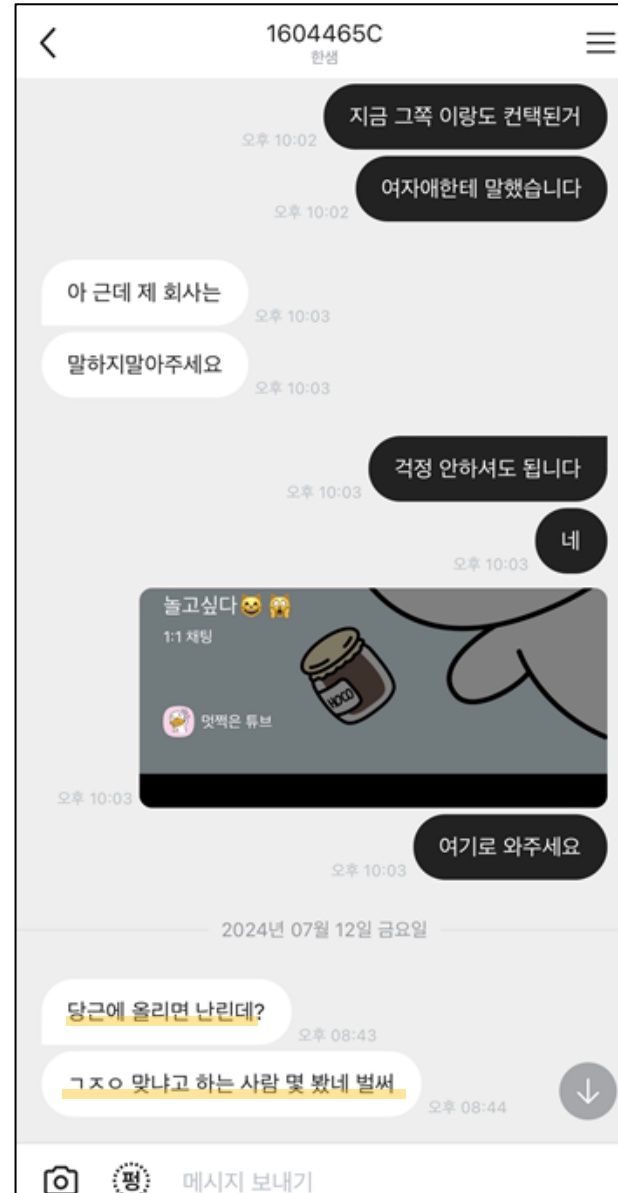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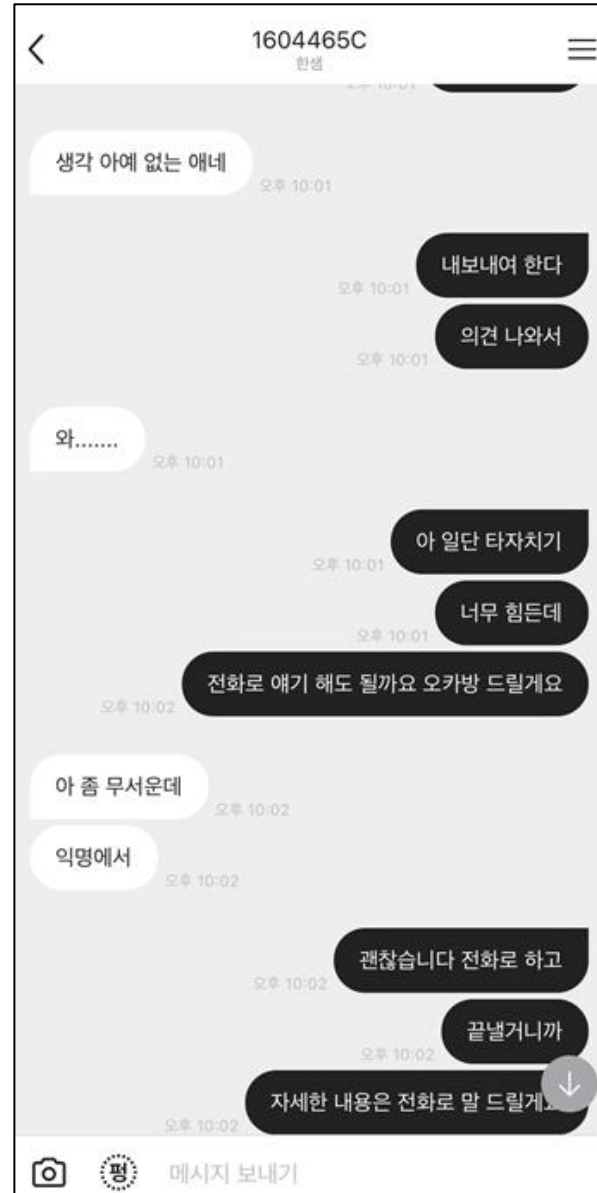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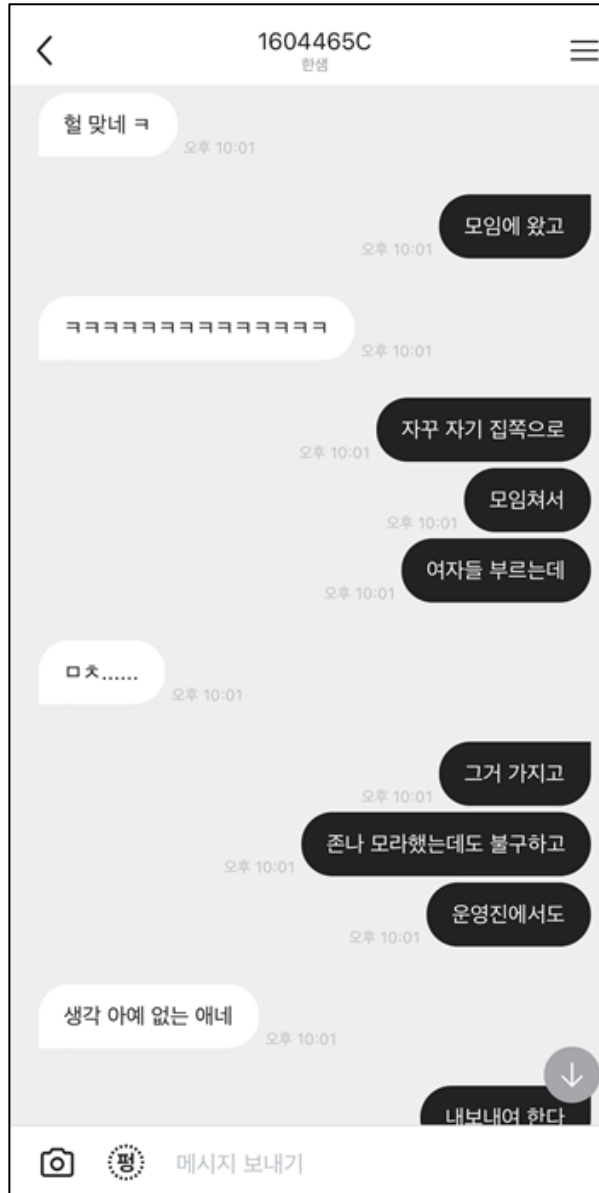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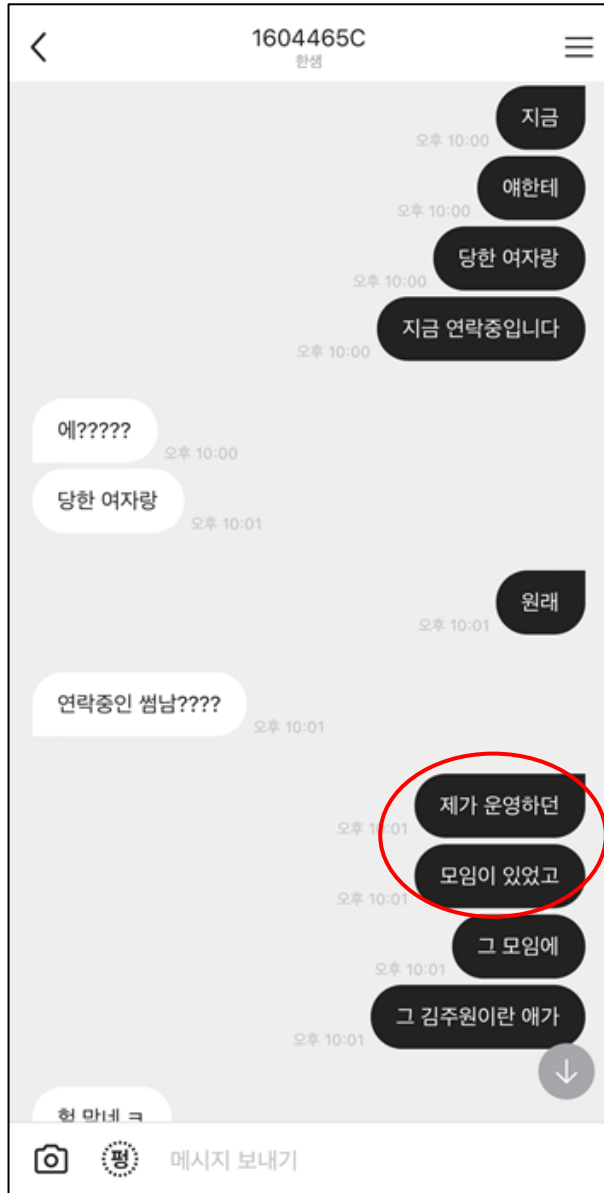


2024.07.11-13 한샘 재직자 익명제보(1/3) (오픈채팅방 방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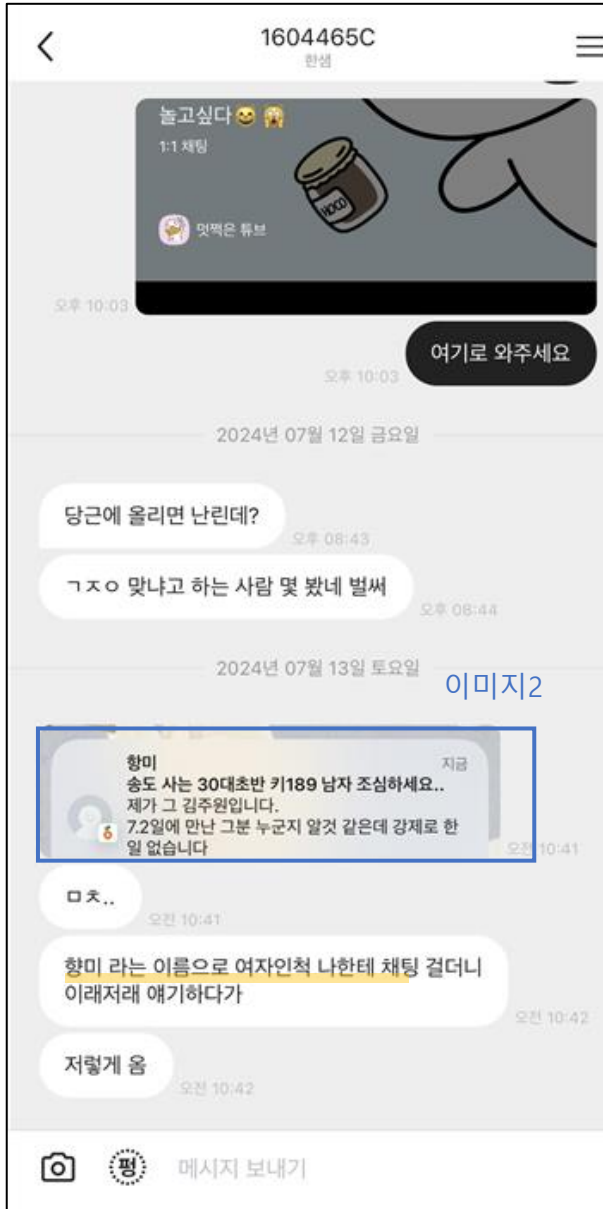
가해자와연락한사람1(이하 '연락한 사람')



2024.07.11-13 한샘 재직자 익명제보(2/3) (오픈채팅방 방장 제공)



2024.07.11-13 한샘 재직자 익명제보(3/3) (오픈채팅방 방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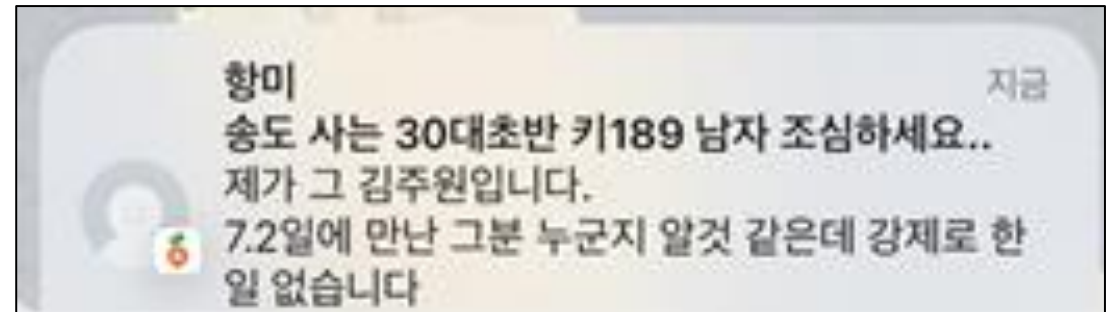


이미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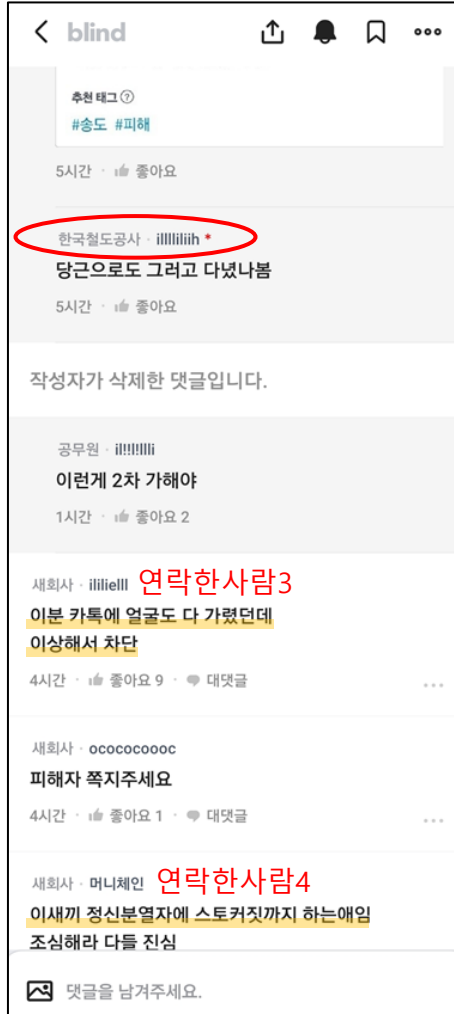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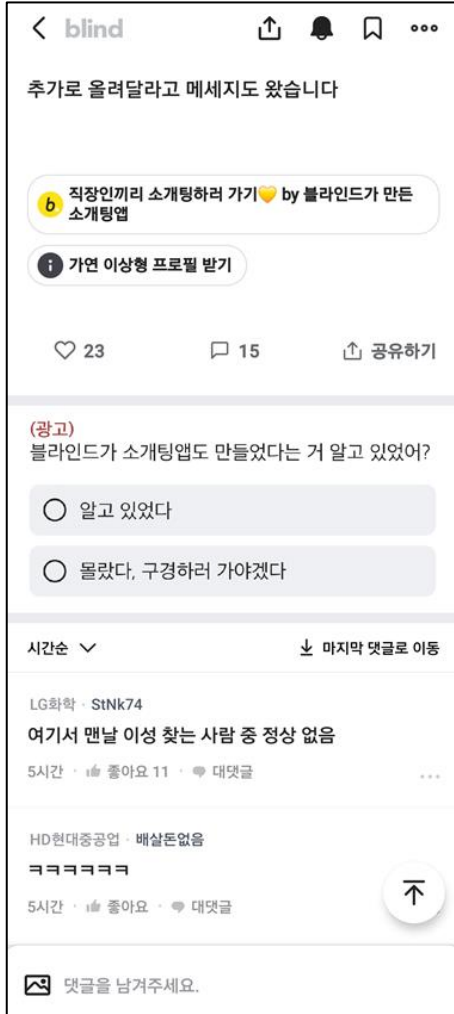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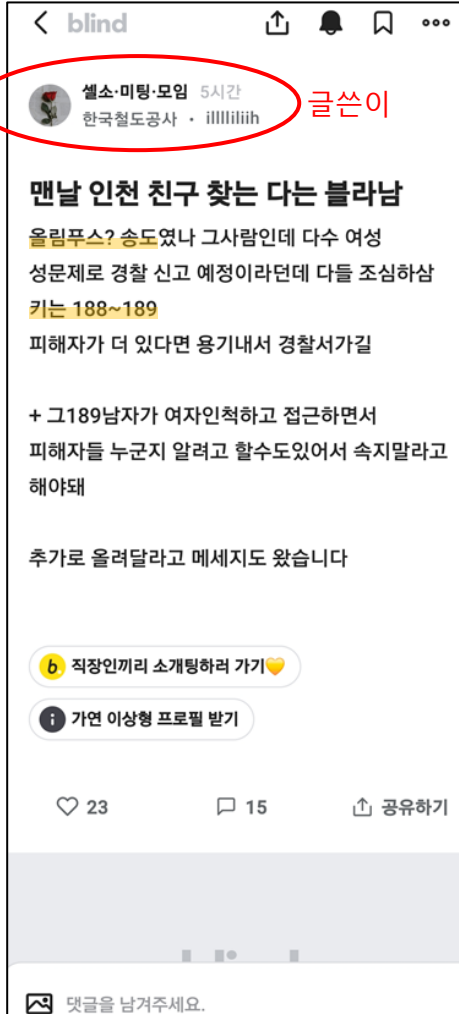
<https://open.kakao.com/o/sKTCeSBg>
이미지 채팅방 링크 (현재 삭제됨)

이미지2



2024.07.13 블라인드 게시글 (1/2)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맨날 인천 친구 찾는 다는 블라남 (셀소·미팅·모임)
<https://www.teamblind.com/kr/s/c0Msp57U>



2024.07.13 블라인드 게시글 (2/2)

< blind

삼성바이오로직스 · ooooo

나 알아 생각만해도 열받는다 성격 개또라이야 진짜

17시간 · 👍 좋아요 10 · 💬 대댓글

한국남동발전 · Bieu88

너도 만나봤어?

15시간 · 👍 좋아요

새회사 · PiEu

인천? 꼬덕

14시간 · 👍 좋아요 2 · 💬 대댓글

새회사 · 190/88

뭐야 나도 인천 사는데 난 아니라서 다행이다 ㄸㄸ

14시간 · 👍 좋아요 · 💬 대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새회사 · ocococoooo

이 글 주인공 직접 들어와서 뭐라뭐라 하는데 그만 얘기하시고요. 피해자분들 연락바랍니다.

11시간 · 👍 좋아요 2

새회사 · ocococoooo

한두명이 아니네

댓글을 남겨주세요. 1/5

< blind

새회사 · ocococoooo

한두명이 아니네

11시간 · 👍 좋아요 4

새회사 · ocococoooo

<https://open.kakao.com/o/sbC1CMgg>

11시간 · 👍 좋아요 · 💬 대댓글

서울특별시교육청 · iihdkd

오 ㅋㅋ

9시간 · 👍 좋아요 · 💬 대댓글

국민카드 · iiiii

와 뭘 하루걸러 하루 터지냐ㅋㅋㅋㅋ
애들아 셀소 딱 한번만 올리는 남자 극히 드물고 대부분 셀소 죽돌이다.
여기서 만나지말고 차라리 인증되는 어플을 하든가 결정사를 가.
여기는 본사 미국에 있어서 사고 터져도 범인 찾기 힘들대.
굳이굳이굳이 셀소로 만나고 싶으면 개가 올린 셀소글 키워드로 검색해보든가 아니면 최소 일주일은 셀소게 눈팅해봐
올리는 놈이 계~~~~속 올림.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올리는데 계속 나이 어려워지는 놈들도 있음
(셀소게 40대 없지? 실제 만나면 40중늠은이 나옴.
개네 다 3중, 3후로 셀소 올려...나 관찰하는 놈 있는데

국민카드 · iiiii

와 뭘 하루걸러 하루 터지냐ㅋㅋㅋㅋ
애들아 셀소 딱 한번만 올리는 남자 극히 드물고 대부분 셀소 죽돌이다.
여기서 만나지말고 차라리 인증되는 어플을 하든가 결정사를 가.
여기는 본사 미국에 있어서 사고 터져도 범인 찾기 힘들대.
굳이굳이굳이 셀소로 만나고 싶으면 개가 올린 셀소글 키워드로 검색해보든가 아니면 최소 일주일은 셀소게 눈팅해봐
올리는 놈이 계~~~~속 올림.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올리는데 계속 나이 어려워지는 놈들도 있음
(셀소게 40대 없지? 실제 만나면 40중늠은이 나옴.
개네 다 3중, 3후로 셀소 올려...나 관찰하는 놈 있는데

댓글을 남겨주세요. 2/5

< blind

국민카드 · iiiii

와 뭘 하루걸러 하루 터지냐ㅋㅋㅋㅋ
애들아 셀소 딱 한번만 올리는 남자 극히 드물고 대부분 셀소 죽돌이다.
여기서 만나지말고 차라리 인증되는 어플을 하든가 결정사를 가.
여기는 본사 미국에 있어서 사고 터져도 범인 찾기 힘들대.
굳이굳이굳이 셀소로 만나고 싶으면 개가 올린 셀소글 키워드로 검색해보든가 아니면 최소 일주일은 셀소게 눈팅해봐
올리는 놈이 계~~~~속 올림.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올리는데 계속 나이 어려워지는 놈들도 있음
(셀소게 40대 없지? 실제 만나면 40중늠은이 나옴.
개네 다 3중, 3후로 셀소 올려...나 관찰하는 놈 있는데 계속 나이 어려져서 징그럽더라)

+ 19계 병행하는 놈도 많음(19계에서 셀소게 조롱하더라ㅋㅋ ㅅㅅ게라고ㅋㅋ)

9시간 · 👍 좋아요 6 · 💬 대댓글

새회사 · peachsky **연락한사람7**

난 피해난 없었지만 나한테 쪽지보낸 앤데 맞는거같아 송도살고 고양이 키우고 키 188인가 189인가
취미가 요리고 클래스 받는것도 좋아한다며 여자가 좋아할만한 취미 갖고있고 되게 성실한척 어필하던데...역겹다...ㅠㅠ

9시간 · 👍 좋아요 5 · 💬 대댓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 blind

새회사 · peachsky

난 피해난 없었지만 나한테 쪽지보낸 앤데 맞는거같아 송도살고 고양이 키우고 키 188인가 189인가
취미가 요리고 클래스 받는것도 좋아한다며 여자가 좋아할만한 취미 갖고있고 되게 성실한척 어필하던데...역겹다...ㅠㅠ

9시간 · 👍 좋아요 5 · 💬 대댓글

한국남동발전 · Bieu88

너도 피해자야?? ㅠ

9시간 · 👍 좋아요

새회사 · peachsky

아니아니 쪽지받아서 그냥 대화만 주고받았다가 말았어 ㅋㅋㅋ 우선 내가 블라를 잘 안하고 귀찮아함 애가 말이 많더라고

9시간 · 👍 좋아요 3

새회사 · 빅웨이브피하지마

유명한 사람인가보네 회사 태그 걸어봐 사내에 아는 사람 나올 듯

1시간 · 👍 좋아요 3 · 💬 대댓글

한샘 · jglh1

회사 태그 걸린 적도 있을걸 글 본 적 있어 이미 유명할 듯

1시간 · 👍 좋아요 2

댓글을 남겨주세요.

< blind

아니아니 쪽지받아서 그냥 대화만 주고받았다가 말았어 ㅋㅋㅋ 우선 내가 블라를 잘 안하고 귀찮아함 애가 말이 많더라고

9시간 · 👍 좋아요 3

새회사 · 빅웨이브피하지마

유명한 사람인가보네 회사 태그 걸어봐 사내에 아는 사람 나올 듯

1시간 · 👍 좋아요 3 · 💬 대댓글

한샘 · jglh1

회사 태그 걸린 적도 있을걸 글 본 적 있어 이미 유명할 듯

1시간 · 👍 좋아요 2

한국화이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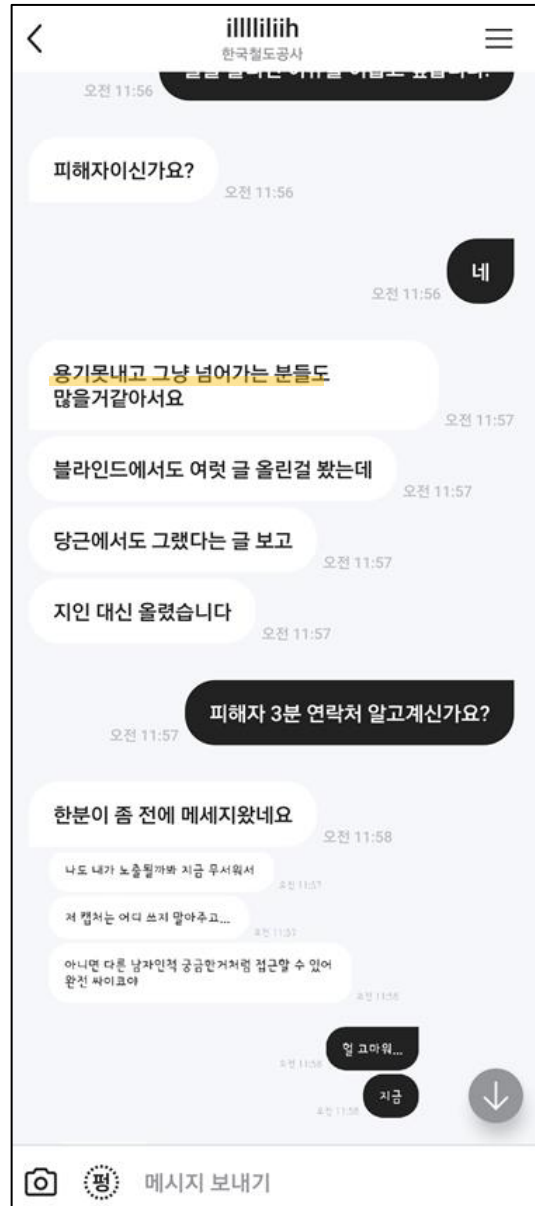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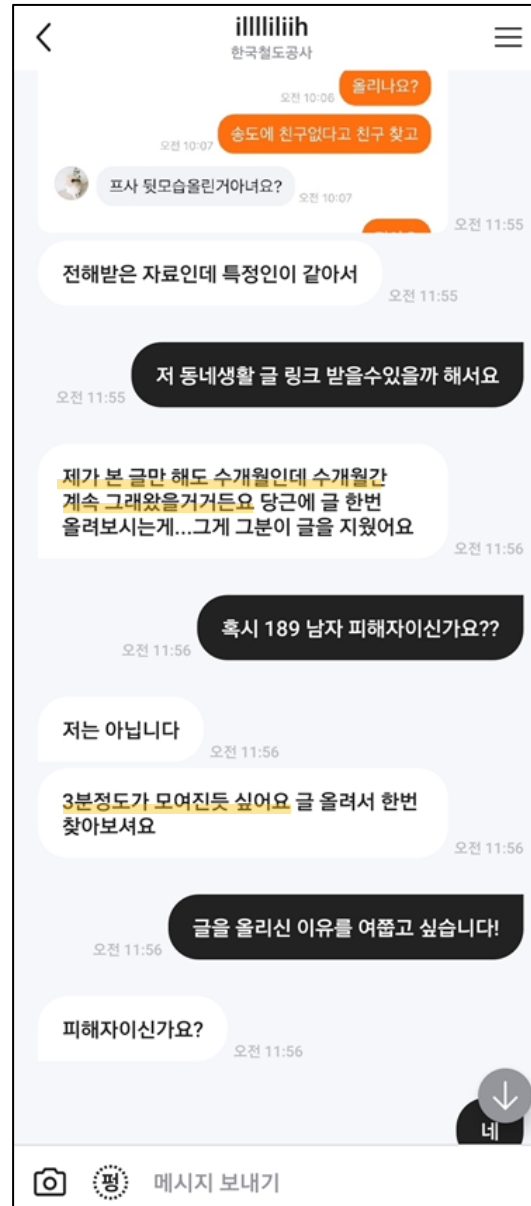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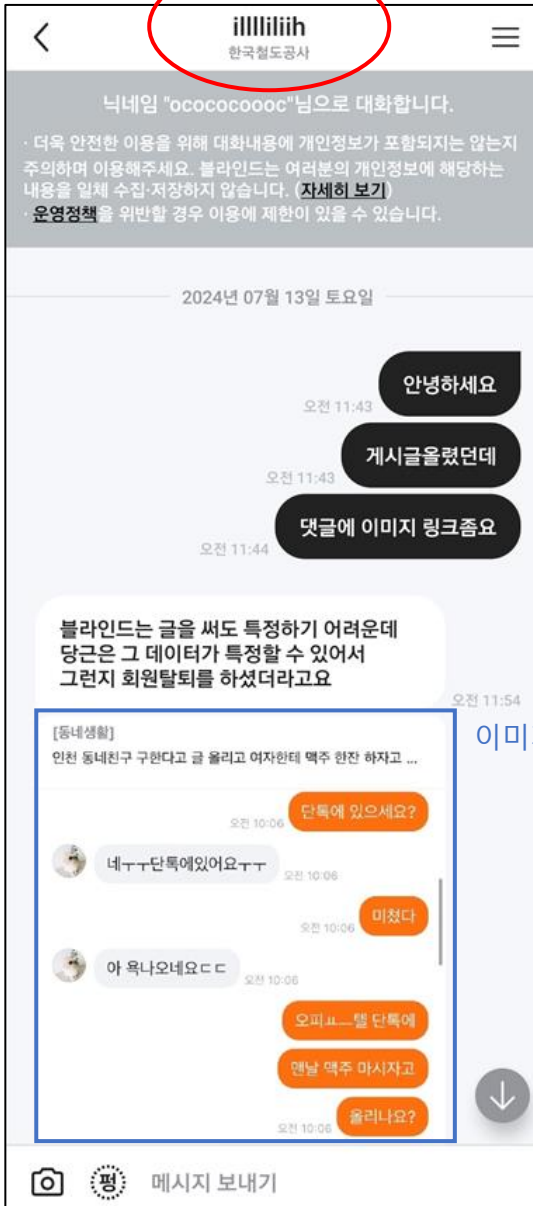
아니 요새 조금만 잘못해도 경찰신고 당하고 성범죄로 티비나오는 시대인데, 반복된다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해라~

1시간 · 👍 좋아요 1 · 💬 대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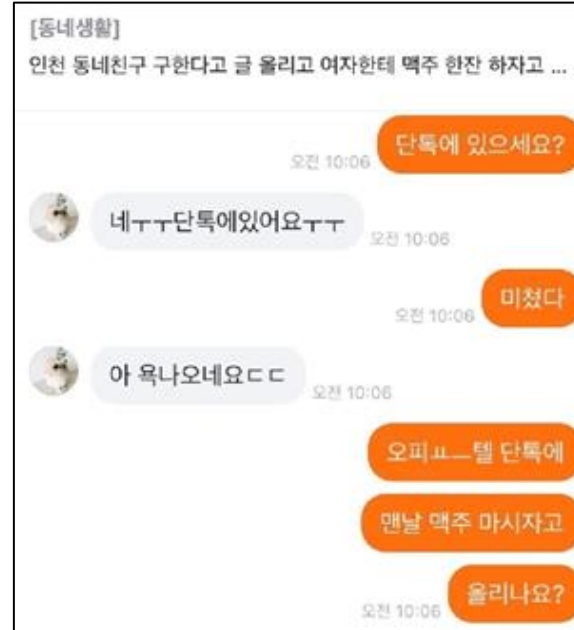
blind

댓글을 남겨주세요.

2024.07.13 블라인드 게시글 (글쓰기와 대화 자료1/1)



2024.07.13 블라인드 게시물 (글쓰기와 대화 자료2/2)




이미지1



이미지2

2024.07.13 정다미님 제보(1/6)

9	정다미:	
10	안녕하세요?	
11	오후 7:54	
12		
13		안녕하세요!
14		오후 7:55
15		
16	정다미: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미지1
31	이사람 맞는지...	
32	오후 7:56	
33		
34		네 맞습니다!
35		피해 보셨을까요?
36		오후 7:56

34		네 맞습니다!
35		피해 보셨을까요?
36		오후 7:56
37		
38	정다미:	
39	네	
40	오후 7:56	
41		
42	정다미:	
43	<u>저랑 연락하면서</u>	
44	오후 7:57	
45		
46		다른여자만나고
47		오후 7:57
48		
49	정다미:	
50	<u>블라에 글 올린거 두번정도 봤어요</u>	
51	오후 7:57	
52		
53		넌 피해자이신거 확인되셔서
54		혹시 신고는 하셨을까요?
55		오후 7:57
56		
57	정다미:	
58	아노 따로 신고할 생각도 못했어요	
59	오후 7:57	
60		
61	정다미:	
62	사실 블라글 올랐은거같이비서	

61	정다미:	
62	사실 블라글 올랐은거같이비서	7월 13일 게시글로
63	오빠 맞냐고 물어보니까	확인되는 사람 7명
64	<u>본인은여기서 여자 3-4명 만나봤고</u>	
65	<u>다 잘해보려했다는 말하고</u>	
66	오후 7:58	
67		
68	정다미:	
69	어젠 저랑 밤에 전화하고 오늘 뭐 본가	
70	간다더니 아침에 카톡하나로 이따 전	
71	화한다면 저 차단한거 같던데요	
72	오후 7:59	
73		
74		네
75		아마 10시 반쯤 연락올거예요..
76		저랑 똑같이시네요
77		오후 7:59
78		
79	정다미:	
80	그 밤에	
81	연락오는거요도 왜 하는건지	
82	오후 7:59	
83		
84		사건발생일이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
85		실 수 있을까요??
86		오후 7:59
87		
88	정다미:	
89	저번주 일요일에 블라글 보고	7월 7일

2024.07.13 정다미님 제보(2/6)


90	정다미:		
91	저번주 일요일에 블라글 보고		
92	오후 8:00		
93			
94		이제 집간다고 하면서 연락올거예요	
95		오후 8:00	
96			
97	정다미:		
98	제가먼저 연락했고		
99	나에게 답장		
1	이제 집간다고 하면서 연락올거예요		
2	그럼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3	오후 8:00		
4			
5		그건 저도 잘 ㅎㅎ..	
6		오후 8:00	
7			
8	정다미:		
9	연락 오래하셨었어요..?		
10	오후 8:00		
11			
12		사건설명 부탁드립니다!	
13		저는 7월2일에 했고	
14		7월 6일까지 했습니다	
15		오후 8:00	

14		7월 6일까지 했습니다	
15		오후 8:00	
16			
17	정다미:		
18	제가 7/6부터		
19	어제까지		
20	연락했어요		
21	오후 8:01		
22			
23		7월 6일에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변호사 상담중입니다	
24			
25		오후 8:01	
26			
27	정다미:		
28	근처사니까 자기집으로도 뷰투르고 저희집에서도 하루 자고		
29			
30	오후 8:01		
31			
32		피해자분들이 더 있을것같아서	
33		제가 모아서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34		오후 8:01	
35			
36	정다미:		
37	언니는 강제로 당하신.. 건가요..?ㅠ		
38	오후 8:01		
39			
40		정다미에게 답장	
41		근처사니까 자기집으로도 뷰투르고 저희집에서도 하루 자고	
42			
43		강제로 하셨나요	
44		오후 8:01	

43		강제로 하셨나요	
44		오후 8:01	
45			
46	정다미:		
47	저는 강제까진 아니라		
48	ㅠ		
49	그냥 술먹고 취해서		
50	오후 8:01		
51			
52	정다미:		
53	하 근데 저랑 연락하면서 또 다른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이런거면 개빡칠거같아요		
54			
55			
56	들어봤어요 전 어제 카톡으로		
57	오후 8:02		
58			
59		네네	
60		오후 8:02	
61			
62	정다미:		
63	나랑 연락하면서 다른 여자들하고도 연락하냐고		
64			
65	아니라고 하던데.. 믿을수가 ㅋㅋ있어		
66	야지..		
67	오후 8:02		
68			

2024.07.13 정다미님 제보(3/6)


65	아니라고 하던데.. 믿을수가 ㅋㅋ있어
66	야지..
67	오후 8:02
68	
69	정다미:
70	연락 어떻게 끝내신건지 여쭙봐도 될
71	까요?ㅠㅜ
72	오후 8:03
73	
74	우선 저분과는 되도록 연락을 피하시고
75	요
76	정다미에게 답장
77	연락 어떻게 끝내신건지 여쭙봐도 될
78	까요?ㅠㅜ
79	안받고있습니다
80	오후 8:03
81	
82	정다미:
83	연락이 지금도 오나요???
84	와... ㅋㅋㅋㅋ
85	오후 8:03
86	
87	그분 연락처도 알고 계시죠??
88	오후 8:04
89	
90	정다미:
91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연락처를 안알려
92	주고 물어보지도 않고
93	<u>보이스톡</u> 만 하더라고요
94	오후 8:04

90	정다미:
91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연락처를 안알려
92	주고 물어보지도 않고
93	<u>보이스톡</u> 만 하더라고요
94	오후 8:04
95	
96	연락처는 모르시나요??
97	
98	
99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분에게 오는 전화입니다.
13	오후 8:04
14	
15	정다미:
16	와....
17	오후 8:04
18	
19	그분 연락처 공개되면 또 개인정보라
20	고 할수있어서 가렸습니다





19	그분 연락처 공개되면 또 개인정보라
20	고 할수있어서 가렸습니다
21	오후 8:04
22	
23	정다미:
24	스토커짓이라는게 이런걸 말씀하신건
25	가보네요..
26	오후 8:04
27	
28	강제로는 안하셨고
29	오후 8:04
30	
31	정다미:
32	네네
33	오후 8:05
34	
35	그냥 취한상태에서
36	어떻게 되신걸까요??
37	오후 8:05
38	
39	정다미:
40	취한상태에서 하고 7월 7일
41	일출점에 연락했을때
42	낮에만나서 술먹고 그러다가 잠들고 7
43	시쯤 전 택시타고 집에왔는데
44	오후 8:05
45	
46	정다미:
47	9시반쯤 저희집으로 왔어요
48	오후 8:06
49	

46	정다미:
47	<u>9시반쯤 저희집으로 왔어요</u>
48	오후 8:06
49	
50	네
51	오후 8:06
52	
53	정다미:
54	<u>같이있고싶다고 같이 자자고</u>
55	그리고 월요일에 각자 출근하고
56	화율은 쉬고
57	<u>수요일에 제가 그사람 집으로 갔었네요</u>
58	그 이후로 아직까진 만나지는 않았습
59	니다
60	오후 8:06
61	
62	정다미:
63	수요일 저랑 만나기전에 전화한거 보
64	니까 기가 막히네요 ㅋㅋㅋㅋ
65	오후 8:07
66	
67	7/7일 밤
68	7/8일 밤
69	7/10일 밤에 만나셨고
70	다 관계를 하셨겠네요
71	오후 8:07
72	
73	정다미:
74	<u>네 안하적 단 한번도 없어요</u>

2024.07.13 정다미님 제보(4/6)

74	네 안전한 단 한번도 없어요
75	오후 8:08
76	
77	네 연락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8	성함은 알고계실까요?
79	오후 8:09
80	
81	정다미:
82	김주원씨
83	맞나요?
84	오후 8:09
85	
86	넵 맞습니다
87	오후 8:09
88	
89	우선 연락은 아예 안하시는것이 좋을
90	것 같습니다TT
91	오후 8:10
92	
93	정다미:
94	
95	
96	
97	
98	
99	
1	
2	
3	
4	

이미지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오후 8:10
17	
18	정다미: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미지3

이미지4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이게
46	마지막 연락입니다
47	오후 8:11
48	
49	감사합니다!
50	저 본가간다고 말한거는 저때메
51	얘기한걸거예요
52	오후 8:12
53	
54	정다미:
55	네네 왜요??
56	오후 8:13
57	

이미지5

12	물론 잠자리 좋아하시는여성도있겠죠
13	저는 아니거든요..
14	오후 8:17
15	
16	정다미:
17	강제로 하신거예요 ?
18	오후 8:17
19	
20	저는 강제로 당했습니다..
21	오후 8:17
22	
23	정다미:
24	할..;
25	오후 8:17
26	
27	정다미:
28	이사람 술먹으면 스킨십 그냥 하고 이
29	러는거에서
30	약간 아 이러려고 글 올린건가 하긴했
31	는데
32	강제로 당하신거면 완전 신고감이지요
33	이건
34	오후 8:18
35	
36	넵 그래서 피해자 모집중에 있습니다
37	TT
38	오후 8:18
39	
40	정다미:
41	근데 요 3 맨날 전화를 저렇게 하는건

2024.07.13 정다미님 제보(5/6)

4			
5	정다미:		
6	알겠습니다..!		
7	오후 8:40		
8			
9		김주원씨와 연락하고 계신가요?	
10		오후 8:54	
11			
12	정다미:		
13	아뇨?! 차단당해서 연락 안해요!		
14	오후 8:59		
15			
16		넵! 감사합니다	
17		오후 9:00	
18			
19	정다미:		
20	아닙니다!		
21	오후 9:23		
22			
23	정다미:		
24	그사람 혹시 연락오나요?!		
25	프사랑 싸다 내려갔던디		
26	오후 9:46		
27			
28		이 오픈톡 링크로 연락 오고있습니다	
29		오후 9:47	
30			
31	정다미:		
32	할 ..		
33	머라고 하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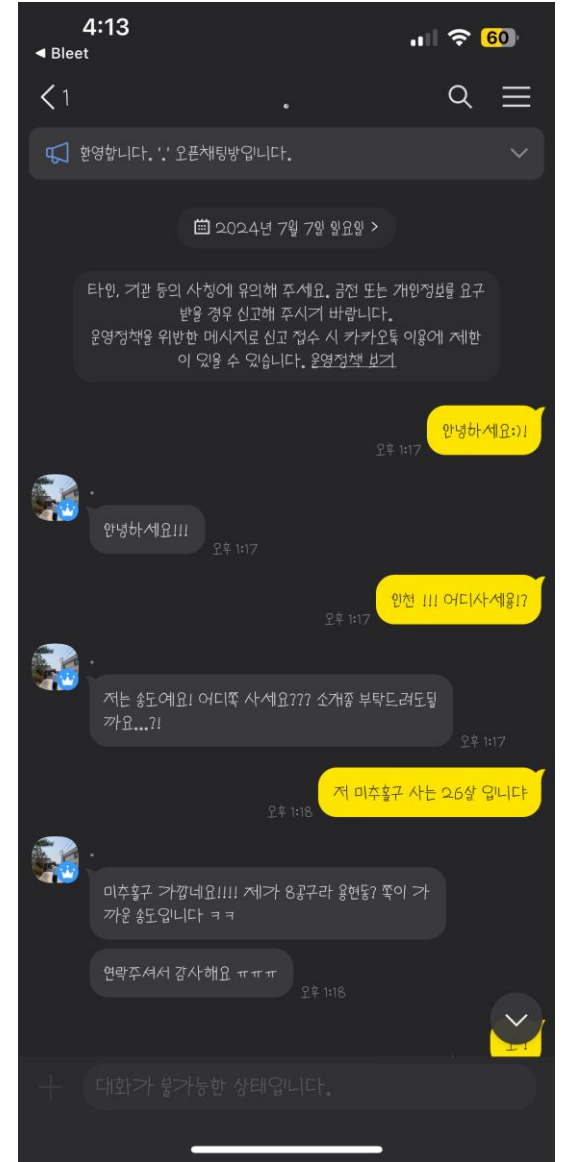
64		다미님 콘돔은 안하셨져?	
65		오후 11:09	
66			
67	정다미:		
68	네..		
69	피임 한번도 안했어요		
70	오후 11:09		
71			
72		요구는 하셨을까요?	
73		오후 11:09	
74			
75	정다미:		
76	제가요??		
77	오후 11:09		
78			
79		넵	
80		오후 11:09	
81			
82	정다미:		
83	처음에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84	이후로 그냥		
85	그렇게		
86	근데 그런말했었어요		
87	너무 잘못아서 좋다		
88	오후 11:09		
89			

92			
93	정다미:		
94	빨리 임신을 시켜야하나 라고		
95	오후 11:09		
96			
97		ㅋㅋㅋㅋㅋㅋ	
98		오후 11:09	
99			
1	정다미:		
2	제가 26살인데 ㅋㅋㅋㅋ...		
3	오후 11:10		
4			
5		임신하면 축복이다	
6		어리시네요 ㅜㅜ 좋은분만나세요	
7		나에게 답장	
8		임신하면 축복이다	
9		저한테 이런말도 했어요..	
10		오후 11:10	
11			
12		혹시모르니 사후피임약 꼭드세요 ㅍㅍ	
13		오후 11:11	
14			
15	정다미:		
16	ㅋㅋㅋㅋ 진짜 미친새기아니아;		

2024.07.13 정다미님 제보(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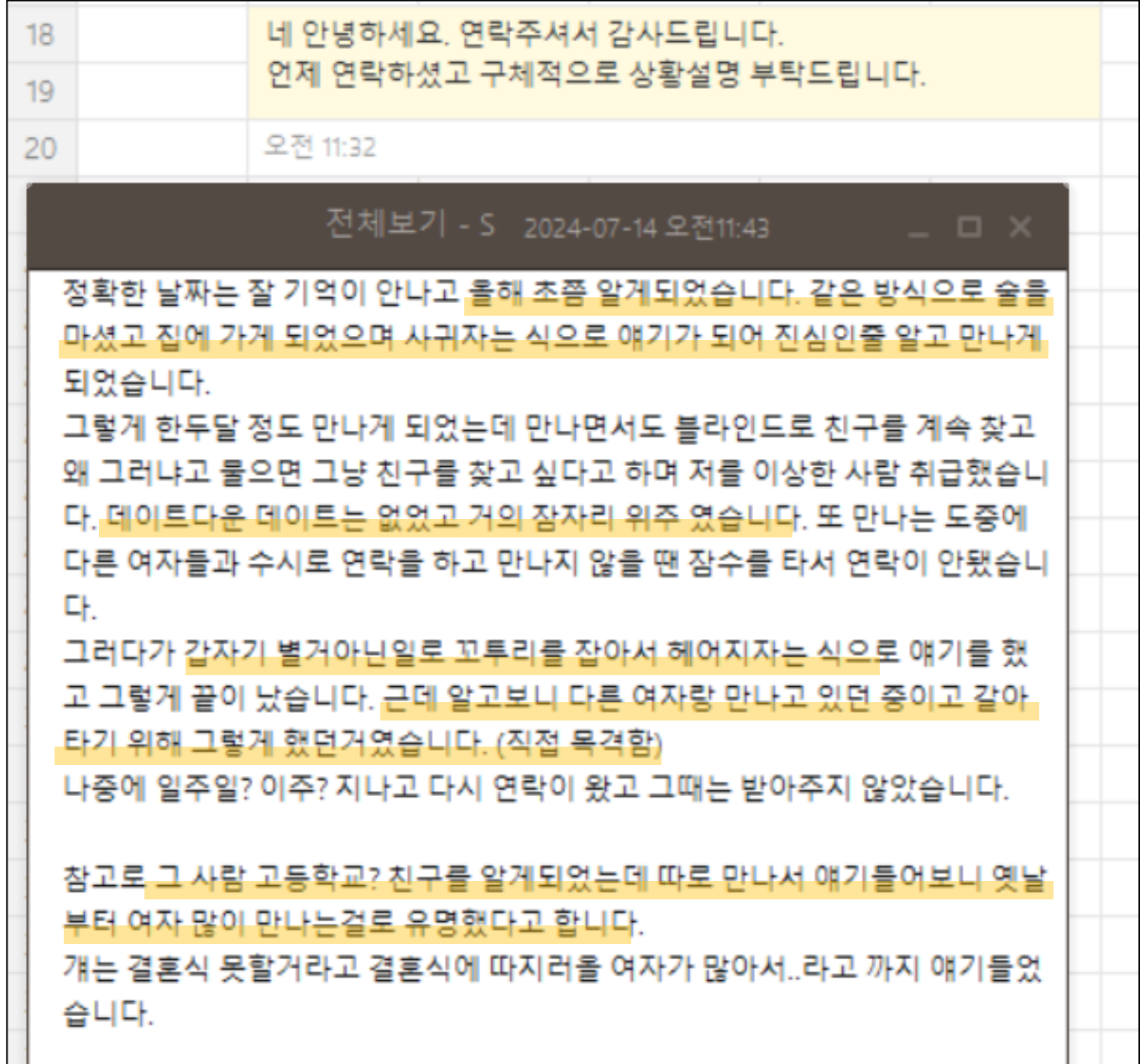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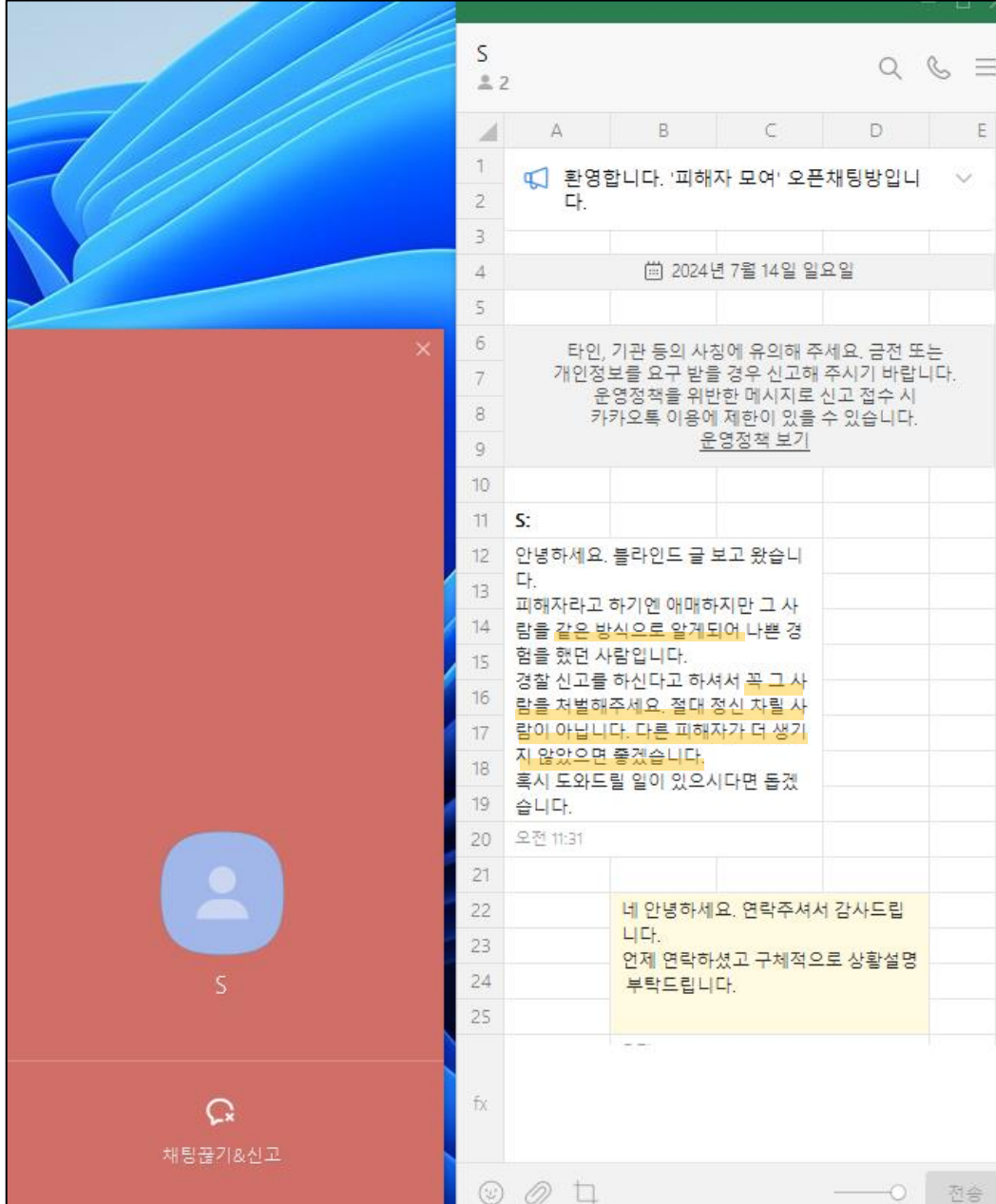


이미지1



처음연락

2024.07.14 S님 제보(1/2)



45				만나실때마다 관계 가지셨는지 혹시 강압적인게 있었는지 피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46				
47				
48				오후 12:00
49				
50	S:			
51	<u>만날때마다 관계를 했고 그때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지</u>			
52	<u>만 본인이 하고 싶으면 힘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임도 하지</u>			
53	<u>않았구요.</u>			
54	저도 잘못이었지만 그 사람이랑 관계 후 분비물이 많아져 산부인			
55	과를 자주 가게 되었고 성병 검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었			
56	던게 <u>같이 병원에 가주면서 자기는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한다</u>			
57	<u>고 하며 이전에 했던 결과를 보여주며 자기는 성병 아니라고 했던</u>			
58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남자가 그렇게 그 검사를 자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9				
60				
61				오후 12:06